



사단법인 **인간개발연구원**

# LG U+



# 좋은사람 좋은세상

Better People Better World

2010. **07+08**

통권 제100호 (비매품) 등록번호 서울 마 03200 발행일 2010년 7월 1일  
발행인 장만기 편집 정용달 TEL 02-2203-3500(대) FAX 02-2203-1974  
디자인 하나로드컴(www.hanaroad.com) 인쇄 (주)광진문화  
주소 135-280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966-4 동성빌딩 202호(www.khdi.or.kr)

Cover Story 이상철 LG U+ 부회장  
통신 그 이상의 통신서비스로  
새로운 고객가치 만들어 가는 LG U+

머릿글 유영만 한양대 교육공학과 교수  
7·8월 프로그램

Issue & Seminar

- 손병두 KBS 이사장
- 김영호 유한대학교 총장

세상을 보는 눈 김현진 (주)아트앤마인드 대표

休 & Health 신민식 자생한방병원 원장

테마경영 손옥 포스코이사회 의장

최윤규의 카툰노믹스

심리학칼럼 김인자 한국심리상담연구소 소장

정보비타민

회원 & 연구원소식

Special Focus 강원도 기후변화대응 역량강화 워크샵

명사초청특강 고승덕 국회의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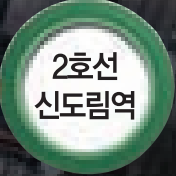
발행인편지

정목일칼럼

# 문화를 창조하는 복합도시- 디큐브시티를 즐기자!

수도권의 새로운 중심 신도림에  
21세기형 창조적 복합문화도시가 2011년 가을에 탄생합니다!  
30,000여㎡ 드넓은 자연공원에서의 즐거운 만남과 함께  
디큐브시티가 드리는 쇼핑, 문화, 첨단 서비스를 경험해 보십시오!

젊은 리더들의 심장을 뛰게하는 HeartBeat City-  
**대성 디큐브시티**



\* 본 홍보물상의 투시도 및 조감도 이미지는 수뢰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개략적으로 표현한 이미지 컷이므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틀 밖의’ 물음표(?)가 ‘뜻밖의’ 느낌표(!)를 낳는다!

창의적 사고는 시대를 불문하고 인간이 갖추어야 될 가장 중요한 능력으로 인정되어 왔다. 그만큼 창의적인 사람들은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한계에 도전해서 전대미문의 새로운 창조적 업적을 만들어왔다.

오늘날 인류가 누리는 문명도 남과 다르게 생각하는 창의적인 사람들의 몰상식한 발상에서 비롯된 것이다. 상식적인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면 금방 식상해진다. 상식적인 사람들에게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몰상식한 아이디어가 시간이 지나면서 상식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다. 새로운 문명발전을 이룩한 사람이나 학문발전을 이룩한 사람들은 모두 상식적인 생각의 수준을 넘어서는 몰상식한 사람이었다. 몰상식한 사람 이야말로 상식에 시비를 거는 사람이며, 상식을 뒤엎어 새로운 가능성을 생각해내는 창의적인 사람들이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처음에는 심한 저항과 비난, 조소와 조롱을 받는 경우가 많다. 시대를 앞서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하기 때문에 보통 사람의 눈으로는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서다.

남다른 생각으로 세상을 놀라게 하는 아이디어를 내는 사람은 아이디어의 원료인 다양한 경험을 갖고 있다. 경험은 직접 몸으로 부딪히는 체험과 독서, 영화 등을 통해 남의 경험을 간접적으로 느껴보는 경험으로 나뉜다.

경험이 풍부하다는 이야기는 창의적 사고를 할 수 있는 원료가 풍부하다는 이야기다. 창의적 사고가 일어나는 원동력은 두 가지 이상을 연결시켜 연속해서 상상력을 발휘하는 이연연상(二聯連想)이나 두 가지 이상의 이질적인 재료를 엮어서 기존에 없던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이종결합(異種結合)이다. 이연연상과 이종결합을 통해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남다르게 제시하기 위해서는 결국 남다른 직접적 경험과 간접적 경험이 풍부해야 된다.

경험은 일종의 창의적 데이터베이스 역할을 한다. 창의적 데이터베이스에 남다른 재료를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에 비해서 창의적 아이디어를 남다르게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

독서를 통해 남다른 어휘력이나 창의력의 원료를 많이 얻을 수 있다. 내가 읽은 책의 수준과 다양성이 내가 제시할 수 있는 아이디어의 수준과 다양성을 결정한다. 책을 읽으면 남이 쓰지 않는 어휘력을 구사할 수 있다. 내가 사용하는 단어의 세계가 내가 창조할 수 있는 세계의 한계를 결정한다(Words create Worlds). 이제까지와 다른 가능성을 상상해서 상상한 가능성의 세계를 현실로 구현하려면 언어로 표현해야 한다.

창의적 사고는 또한 물음 속에서 자란다. 엄밀히 말해서 창의적 사고는 물음표와 느낌표 사이에 살아간다. 물음표가 느낌표를 탄생시킨다. 즉, 느낌표는 물음표가 낳은 것이다. 물음표는 ‘틀 밖의’ 사고에서 비롯된다. 틀 안에 갇혀 살면 물론 그렇다고 여기거나 당연한 것이며 원래 그렇다고 생각한다. ‘틀 밖의’ 사고를 해야 ‘뜻밖의’ 결과를 낳는다. ‘뜻밖의’ 결과는 틀 밖에서 물음표를 던지면서 궁리에 궁리를 거듭해야 나온다. ‘틀 밖의’ 물음표가 ‘뜻밖의’ 느낌표를 동반한다.

여기서 물음표는 호기심을 갖고 남들이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것에 끊임없이 의문을 던지고 질문을 제기하는 상상력이다.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남들이 당연시하는 것, 원래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 틀에 박힌 사고에 시비를 걸면서 물음표를 던질 때 어느 순간 우리가 원하는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것이다. 당연한 세계, 익숙한 세상, 틀에 박힌 사고에 시비를 걸면서 질문을 던지는 것이다.

물음표(?)를 뒤집으면 낚시 바늘 모양이 된다. 다른 고기를 잡으려면 낚시 바늘을 바꿔야 되는 것처럼 지금까지와는 다른 답을 구하려면 지금까지 던지지 않은 질문을 던져야 된다. 질문의 성격과 방향이 내가 얻을 수 있는 답의 성격과 방향을 결정한다. 창의적 사고를 키우고 싶거든 남이 경험해보지 못한 색다른 경험을 하면서 이제까지와는 다른 질문을 던져야 한다. 물음 속에 창조의 씨가 자란다. **▶▶▶**



●유영만 교수

1963년생으로 한양대 교육공학과 학부와 석사를 마치고 미국 플로리다주립대에서 교육공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삼성인력개발원과 삼성경제연구소 등을 거쳐 현재 한양대 교육공학과 학과장 겸 한양대 교수학습개발센터장을 맡고 있다. 지식생태학자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면서 조직에 지식나무를 심어 지식 숲을 조성하고 그 속에서 지식열매와 지식 꽃이 만개할 수 있는 지식생태계를 조성, 일상에서 비상할 수 있는 생태학적 상상력을 키워나가는데 주력하고 있다. <상상하여 창조하라>, <청춘경영> 등 50여 권의 저서와 역서가 있다.

# 인간개발경영자연구회 프로그램

매주 목요일 07:00~09:00

## ■ 仁, 利와 경영

제1652회 7월 1일(목) 롯데호텔(소공동) 3층 사파이어볼룸  
안태식 서울대 경영대학 학장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가 전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여전히 상당한 수준이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진정한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 안태식 교수는 그 원인을 '인간의 탐욕(Greed)'에서 찾는다.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서 엄청난 규모의 전문인력과 첨단시스템이 무기력해졌다는 것이다.

〈논어〉를 보면 “군주는 인(仁)으로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군주와 신하, 백성간의 관계를 도덕적 관계로 봤다. 반면 한비자는 인간을 '이(利)를 추구하는 동물'로 규정하고 군주와 신하, 백성간의 관계를 이성적 계약 관계로 봤다. 한비자는 “공이 있으면 친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반드시 상을 내리고 잘못이 있으면 아끼는 사람이라도 벌을 내려야 한다”는 신상필벌(信賞必罰)을 이야기했다.

한비자가 주장하는 것은 오늘날 서구사회의 인센티브 시스템과 닮은 점이 많다. 인센티브는 조직원에게 주인의식을 갖게 하는 것으로 노력을 보상함으로써 그 이익을 나눠 갖는 것이다. 결국 자신의 이(利)를 추구하는 인간의 속성이 현대시장경제의 근본 가정이고 인센티브시스템 설계의 근간이 된다.

이번 연구회에서는 안태식 서울대 경영대학장을 초빙하여 인간의 탐욕과 관련해 인간은 과연 이(利)를 추구하는 동물인지, 인간의 본성이 인(仁)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인지 둘 사이의 상충관계를 오늘날의 경영에 접목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는다.



서울대 경영학과 졸업 | 美 텍사스 오스틴대 회계학 박사 | 美 애리조나주립대 경영대학 교수 |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 교무부학장, 경영전문대학원장 | 한국경영사례연구원 원장 | 한국관리회계학회 회장 | 대한경영학회 부회장 | 한국회계학회 부회장 | 아시아회계학회 및 아시아태평양관리회계학회 집행이사 | LG디스플레이, 현대제철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장 | 현대엘리베이터 사외이사

## ■ 선진국으로 가는 길 - 우리가 잃어버린 1%

제1653회 7월 8일(목) 롯데호텔(소공동) 2층 에메랄드룸  
인요한 연대세브란스병원 외국인진료소 소장

갈색머리와 벽안(碧眼)의 한국인, 인요한. 그는 미국 국적의 백인이지만 1959년 전북 전주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을 전남 순천에서 보내면서 '한국인'으로 자랐다. 미국보다 한국을 더욱 편안하게 느끼고 그리워하는 그는 토종한국인으로 불리기에 손색이 없다.

1895년 진외증조부(아버지의 외조부) 유진 벨 목사가 선교사로 한국 땅을 처음 밟은 이래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에 이르기까지 5대째 한국에 살면서 선교, 봉사활동, 북한결핵퇴치사업과 의료장비 지원사업 등으로 한국 사랑에 힘을 쏟으며 이방의 한국인으로 살아왔다.

특히 인요한 소장은 대학시절 광주사태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한국 발전사의 대부분을 지켜봐왔다. 그는 한국의 성공요인을 세 가지로 이야기한다. 첫 번째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5·16혁명과 새마을운동 및 조선기술의 발전 등으로 대표되는 한국 발전정책이고, 두 번째는 하루 16시간 이상 일하던 한국 근로자들의 헌신적인 힘이며, 마지막으로 한국의 어머니라고 말한다. 반면 한국의 문제점으로 보수와 진보, 좌와 우,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양보와 타협 없이 소모적인 싸움을 하는 점을 꼬집는다.

이번 연구회에서는 조금은 다른 각도에서 한국을 바라봐 왔던 인요한 소장을 초빙하여 새마을운동으로 시작된 한국의 발전과 현대의 모습뿐만 아니라 남북관계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해 채워야 할 부족한 1%를 모색해보는 시간을 갖는다.



연세대 의학과 졸업 | 고려대대학원 석·박사 | 미국 뉴욕주 Flushing Hospital 소아과 수련의 | 미국 뉴욕주 Catholic Medical Center of Brooklyn Queens 가정의학과 수련의 | 연세대 의과대 가정의학과 교수 | (재)순천기독결핵재활원 이사 | 한국항공우주 의학협회 대외협력이사 | (사)세계결핵제로운동본부 부총재 | 대한가정의학회 이사 | 한국국제협력단(KOICA) 자문위원  
〈상훈〉 내무부장관공로상,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장, 대통령표창장, 국민훈장목련장, 자랑스러운 광주전남인상  
〈저서〉 내 고향은 전라도 내 영혼은 한국인



## ■ 긍정의 리더십

제1654회 7월 15일(목) 롯데호텔(소공동) 2층 에메랄드  
김동녕 한세YES24홀딩스 회장

경기침체가 본격화되면 소비재 매출이 줄어드는 것이 통상적이다. 하지만 거꾸로 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회사가 있다. 김동녕 한세YES24홀딩스 회장이 이끄는 쌍두마차로 대한민국 1위 인터넷서점 '에스24'와 의류수출 전문기업 '한세실업'이다.

2003년 5월, 의류수출업체인 한세실업은 적자에 허덕이는 온라인 서점인 YES24를 인수했다. 그리고 인수 7년째, YES24는 매년 20% 이상의 꾸준한 성장을 지속한 결과 인터넷 서점계의 과열된 출혈경쟁을 잠재우고 국내 인터넷서점 1위에 등극했다.

과연 그 비결은 무엇이었을까? 해답의 힌트는 김동녕 회장의 경영철학에서 엿볼 수 있다. 김 회장은 "전문경영인과 직원들이 모두 함께 된다"는 모토를 강조한다. 경영만 잘한다고 회사가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임원진과 개개인이 다 같이 성장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모토 덕에 직원들은 수시로 아이디어를 낼 수 있었고, 그 아이디어는 즉각 반영돼 왔다. 사실 섬유수출회사 CEO로 인식되던 김 회장이 IT로 대변되는 인터넷 서점 YES24를 인수한 것도 신성장동력을 찾자는 젊은 직원들의 가감 없는 의견 피력 이후 전격적으로 이뤄진 것이다

이번 연구회에서는 불황 속 성장을 이끌어 온 긍정리더십의 대표 주자, 김동녕 회장을 초빙하여 글로벌시대, 불황 속에서 기회를 만들어 온 그의 리더십과 경영철학에 대해 들어보는 시간을 갖는다.



서울대 경제학과 졸업 | 美 펜실베이니아대 워튼경영대학원 경영학 석사 | 한세통상 사장 | 한세유통 대표이사 | 아이스타일24 회장 | 한세실업 회장 | 에스24 회장 | 펜실베이니아대 한국총동문회 회장 | 이화여대 경영학부 겸임교수 | 한베친선협회 부회장  
〈상훈〉 미국 인적자원관리협회-올해의 경영인상, 한국경제 비전 경영 CEO대상, 한국일보 대한민국 신뢰받는 CEO상, 대한민국 창조경영인수상-가치경영부문외

## ■ 고품격 CEO리더십을 위한 아트 스피치

제1655회 7월 22일(목) 롯데호텔(소공동) 3층 사파이어볼룸  
김미경 W-insights 대표

'말하기' 즉, 스피치가 화두인 시대이다. 건배사부터 시작해 자기소개, 짧은 인사말, 축하사, 긴 강연에 이르기까지 적절한 콘텐츠를 형식에 맞춰 말하는 능력은 매우 중요하다. 스피치는 사회생활을 하는 누구에게나 필요하고 자기 자신을 잘 표현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다. 또한 스피치는 사람의 영혼을 감동시키고 설득하는 일이다. 불후의 명곡이 짜임새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듯 멋진 스피치는 콘텐츠와 색채, 몸짓언어, 청중, 공간 언어가 잘 조화를 이루는 하나의 아트다.

최근 들어서는 CEO의 리더십을 위한 아트스피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아트 스피치는 단순한 말장난, 테크닉이 아니라 콘텐츠 즉, 스피치를 구성하는 내용이 얼마나 진실되고 설득력 있으며, 듣는 이에게 얼마나 잘 다가갈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한다. 청중은 어느 누구보다도 냉정하다. 때문에 청중을 잘 파악하고 청중에게 다가갈 수 있는 스피치를 해야 한다.

이번 연구회에서는 아트 스피치의 대가 김미경 대표를 초빙하여 진실한 콘텐츠를 만드는 법에서부터 공감을 얻기 위해 청중을 파악하는 법, 목소리의 강약, 장단, 리듬 등을 통해 스피치에 채색을 더해 입체적이고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법, 표정이나 시선처리, 그리고 제스처와 같은 비주얼을 통해 청중의 마음을 움직이는 법 등 CEO를 위한 아트 스피치 방법을 들여보는 시간을 갖는다.



연세대 작곡과 졸업 | 이화여대 여성정책학 석사 | 여성가족부 성희롱예방강사 초대 회장 | 여성가족부 남녀평등 의식교육 교수위원 초대 회장 | 2008 창의서울포럼 복지부문 부대표 | 이화여대 정책과대학원 동창회장 | 서울시 수돗물 아리수 명예홍보대사  
〈상훈〉 2007년 미래를 이끌어 갈 여성지도자상, 2009년 서울시 여성상

\* 7월 29일은 제주CEO섬머포럼 일정으로 휴회합니다.

# 인간개발경영자연구회 프로그램

매주 목요일 07:00~09:00

## ■ 한국경제의 리모델링 구상

제1656회 8월 5일(목) 롯데호텔(소공동) 2층 에메랄드룸

유장희 이화여대 명예교수

중진국의 범위를 넘어 선진국으로 진입하려는 한국경제에 대해 국제사회가 거는 기대가 사뭇 크다. 특히 한국경제를 오랫동안 연구해온 국제경제학자들의 권고는 경청할만하다. 한국경제는 이제 구각(舊殼)을 벗고 중세(中勢, middle power), 연세(軟勢, soft power)의 이점을 살려 새로운 세계경제 질서를 구축하는데 큰 역할을 담당해야 하며, 국내경제도 재래식 제조업의 틀에 더 이상 묶이지 말고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지식산업, 서비스산업을 발전, 확산시켜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한 국내외적 여건은 호전되고 있다. 국제적으로 G20, NSS50 등을 개최하여 중세국가(中勢國家)로서의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국내적으로 지금 산업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신산업혁명의 추세를 잘 살려나가면 좋을 것이다. 한국경제는 우수한 인력, 축적된 자본, 그리고 선진수준에 이르는 신기술이 있으므로 '리모델링'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

이번 연구회에서는 한국 경제정책 방향과 과제에 대해 정부·학계·언론 등에 활발한 자문활동을 해오며, 대통령이 의장을 맡는 청와대 국민경제자문회의의 부의장과 중소기업중앙회 기업정책분야 자문위원을 맡고 있는 유장희 교수를 모시고 한국경제의 리모델링 구상에 대해 들어보는 시간을 갖는다.

## ■ 첨단국가를 향한 혁신

제1657회 8월 12일(목) 롯데호텔(소공동) 3층 스파이더볼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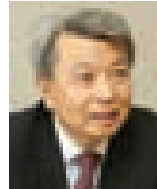
이각범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위원장

인터넷이 대중들에게 생소했던 시절, 미국의 부통령 앨 고어는 미 전역에 광통신 네트워크를 구축해 초고속 정보통신망을 통해 모든 종류의 콘텐츠와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하겠다는 발표를 했다. 우리 정부도 이에 자극을 받아 1990년대 정보통신 기반구축을 시작으로 2000년대 정보화 융합촉진 과정을 거쳐 현재의 디지털 생활혁명시대에 도래했다.

지식정보사회의 도래는 과거 하드웨어 중심에서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IT 패러다임의 변화를 유발할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변화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국가정보화전략 과제를 발굴했다. 현재 Smart Work 활성화, IT 신(新)산업육성, IT를 통한 서비스산업 선진화, 디지털 융합인프라 구축, IT 국제협력 강화, 통합국가지식인프라 구축, 안전한 정보사회 구축, IT를 통한 사회통합 추진 등 대한민국 전체를 바꾸는 정보화 밑그림이 완성되었다. 활용과 공유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춰 이전 전혀 다른 차원의 국가정보화가 추진될 것이다. 국가정보화전략의 10대 과제는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핵심 어젠다이며 행정정보화에 그치지 않고 사회·경제·문화 등 국가 전반에 걸친 대표적인 정보화 과제를 도출한 것이다. 이번 연구회에서는 대통령직속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의 이각범 위원장을 초빙하여 IT기술이 사회 전반에 접목되는 융합 패러다임과 소비자인 국민이나 기업 등이 보다 쉽게 정보자원을 활용해 소프트웨어를 높이는 방향에 대해 논의된 정책방안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는다.



서울대 경제학과 졸업 | 美 UCLA 경제학 석사 | 美 텍사스A&M 대 경제학 박사 | 美 클라크대, 버지니아주립대 경제학과 교수 | 서울대 경제학과 및 국제경제학과 초빙교수 |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 | 한국국제경제학회 회장 | 한국경제학회 회장 | 이화여대 대외부총장, 명예교수 | 한국경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 | 동아시아경제학회(EAEA) 회장 |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상훈> 미국 버지니아주립대 상대 최우수교수상, 한미경제학회 감사패, 국민훈장 동백장외  
<저서> 한계선 너머 빛이 보인다, 민영공화국, 서비스의 수출산업화전략외



서울대 사회학과 졸업 | 독일 Konstanz대 석사 | 독일 Bielefeld대 석. 박사 |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 대통령실 정책기획서비스관 | 한국정보사회학회 회장 | 정보통신부 미래전략위원회 위원 | 정보문화포럼 의장 | KAIST ICC 경영학부 교수 | [사]한미관계비전21포럼 회장 | 대통령직속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위원장  
<저서> 21세기 한미 관계의 재정립-글로벌 동맹관계를 위한 로드맵, 하이트렌드-디자인과 콘텐츠가 창조하는 기업의 미래, 퓨처코드: 대한민국 미래 트렌드

## ■ 제왕학적 관점에서 본 지도자의 덕목

제1658회 8월 19일(목) 롯데호텔(소공동) 3층 사파이어볼룸  
**김유혁** 단국대 명예교수

옛날에는 국왕이 어떻게 치세하느냐에 따라 백성의 행복이 좌우되었다. 그래서 왕자의 교육을 위한 제왕학(帝王學)이란 것이 있었다. 실제로 중국 황실에는 위대한 황제를 만들기 위해 5천년에 이어서 집대성된 현학들의 지혜의 보고 <제왕학(帝王學)>이라는 비서(秘書)가 전해내려 왔으며,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도 세자와 왕의 의무교육으로 제왕학이 있었다. 제왕학은 한 인간이 어떻게 나라를 통치하고 신하와 백성을 다스리면서 장기간 동안 태평성대를 누리는가를 밝히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 그렇기에 이 학문은 철학과 심리학, 정치학, 경영학, 역사학 등이 결합되는 고도의 응용학이다.

기업에서도 사장의 경영에 따라 회사의 운명, 직원들의 행복이 좌우되고, 리더의 자질에 따라 성공과 실패가 판가를 나기도 한다. 그 때문에 과거에는 경영 2세들이 타사에서 교육을 받고 했다. 앞으로는 CEO뿐만 아니라 조직의 모든 구성원이 자기 스스로를 규율하는 제왕학을 익히지 않으면 안 되며, 전원이 경영자처럼 일하지 않으면 조직의 성공, 사회의 번영이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

역사 속 제왕들의 리더십은 언제나 생생한 교훈을 제시해주는 살아있는 보고(寶庫)다. 이번 연구회에서는 퇴계학과 율곡학, 실학 등 전통문화연구에 지대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제왕학 분야의 최고 권위자인 김유혁 교수를 초빙하여 제왕학적 관점에서 본 지도자의 덕목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는다.



日 早稻田大學 도시학 박사 | 중국학술원 명예박사 | 몽골국립상과대학 명예박사 | 단국대 학생처장, 교무처장, 법정대학장, 지역연구소장, 퇴계학연구소장, 부총장 | 안중근의사기념관 관장 | 한국지역사회개발학회 회장 | 새마을운동중앙회 회장 | 금강대학교 총장 | 퇴계학연구원 이사 | 일본지역학회 이사

<저서> 전통윤리와 현대사회, 이퇴계의 인간상, 한국 새마을운동과 몽골의 Ger-Model Town, 당신은 바람을 보았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이퇴계는 누구인가?, 인간과 사회 외

## ■ 사장수업

제1659회 8월 26일(목) 한국경제신문사 18층 다산홀  
**이혁병** ADT캡스 회장

세계 1위의 보안서비스업체인 ADT와 한국의 캡스가 만난 'ADT 캡스'의 경영화두는 '열정'과 '감성'이다. 이혁병 사장은 2002년 3월, 캡스 사장으로 부임한 후 1,000명이 넘는 노조원들이 건물을 에워싸면서 일주일간 퇴근도 못하고 소파에서 보낸 시절이 있었다.

그 일이 있고난 후 명령에 죽고 사는 군대 같은 분위기인 캡스의 근본적인 문제는 커뮤니케이션의 부재라고 생각하고 직원들과 어울려 수상스키와 승마를 하고, 문화예술작품을 관람하는 등 수평적 커뮤니케이션으로, 직원들이 신나고 행복한 회사를 만들기 위해 끝없는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17개의 동호회 운영, 사내 핫라인으로 48시간 내에 직원들의 불만을 해결하는 유쾌한 해결사가 되었고, 국내의 유명 디자이너에게 의뢰해 현장 사원들의 유니폼도 산뜻한 디자인으로 바꾸는 성공적인 변화를 이뤄냈다. 캡스 성공의 핵심요소는 직원회합과 더불어 디자인의 중시에 있다. 이 회장은 "전략을 짜는 것도 큰 틀에서 보면 결국 자사의 역량을 정확히 파악하고 인적·물적 자원을 보기 좋게 배치한다는 점에서 디자인과 다르지 않다"고 이야기 한다.

이번 연구회에서는 '감동직원이 감동고객을 창출한다'는 경영철학으로 일하기 좋은 회사로 성공신화를 만들어가는 이혁병 회장을 초빙하여 ADT캡스의 다양한 경영 히스토리를 들어보는 시간을 갖는다. **▶▶▶**



서울대 기계공학과 졸업 | 美 하버드대 경영학 석사 | 1978년 대우그룹 입사 및 자동차수출, 그룹전략기획팀 | (주)대우반도체 기획·마케팅 과장 | (주)한국신용평가 수석연구원, 기획조정실장 | 캐리어 아시아본부 사업담당 이사 | 대우 캐리어 전무이사 | CRO Korea 및 LG캐리어 대표이사 | (주)캡스 대표이사 및 Tyco Fire&Security Korea 총괄사장 | ADT Asia Pacific Operation 영업 마케팅 부사장 | 다국적기업 최고경영자협회(KCMC) 부회장 | 한국청소년육성회 총재

<상훈> 한국CEO경영대상, 한국을 빛낸 기업인 대상, 글로벌로 가는 자랑스런 얼굴 선정외

Issue & Seminar 1

손병두 KBS 이사장

5월 13일(목) 롯데호텔(소공동) 3층 사파이어볼룸

# 자연연구

## CEO Forum

만듭니다.

한

인간개

이

제1645회 인간개발경영자연구회

# 호암 이병철 회장과 김수환 추기경에게서 배우는 교훈

‘여든 할아버지가 세 살 손자에게서 배운다’는 말이 있듯이 사람이 일생을 살아오면서 만나는 사람 모두가 스승이며 많은 배움을 얻는다. 그 중에서도 특히 많은 배움과 깨달음을 준 스승을 기억할 것이다. 나 역시 학교와 사회에서 많은 스승을 만났는데, 오늘은 특별히 두 분의 스승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한다.

한 분은 삼성에서 모셨던 호암 이병철 회장이고, 한 분은 교회에서 모신 김수환 추기경이다. 이병철 회장은 그분의 기업생활 50년 중에 10년 가까이 비서실에서 모실 수 있었다. 그 분은 60대로 한창 기업가로서 성공하여 수확을 하는 시기였고, 나는 30대의 젊은 나이로 그 분을 모시면서 많은 것을 배우는 시기였다.

김수환 추기경은 내가 천주교 신자로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내 여러 직분을 수행하게 되어 직접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고, 사랑도 많이 받았다.

특히 호암 이병철 회장은 올해가 탄생 100주년이라 그분의 생애와 업적에 대해서 언론에서 특집 기사를 다루며 재조명한 바 있다. 김수환 추기경 역시 선종하신지 1년이 되어 다시금 우리 사회가 그 분을 추모하기도 하여 어떤 형태로든 각자의 머릿속에는 두 분에 대한 이미지가 형성되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는 두 분의 업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보다는 그분들의 삶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생각해 봐야 할 교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한다.

## 자본주의 초석 다진 기업인 이병철

이병철 회장은 50여 년 동안 기업가로서 일만 열심히 하신 분이 아니라 엄청난 공부와 독서를 하셨다.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는 사람 보고 건너다”고 할 정도로 심사숙고 하는 스타일이었다.

그분의 경영활동 저변에 흐르는 철학과 생각은 <호암자전(湖巖自傳)>에서도 밝혔듯이 <논어>에서 많은 배움과 깨우침을 얻었고, 특히 살아오면서 생활의 지침으로 삼았다. 특히 조직원들에게 정직을 강조하셨다. 실수는 봐주지만 부정은 용서하지 않았다. “어떤 조직이든 조직의 10%는 부정을 하라고 해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고, 10%는 부정을 하지 말라고 해도 부정을 저지르는 사람이다. 80%는 분위기에 따라 움직이게 되므로 10%를 잘 관리하지 않으면 전체가 부정을 저지르게 된다. 이렇게 되면 기업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도 감옥에 가던지 불행한 삶을 살게 된다”고 했다.



이병철 회장은 누가 뭐래도 우리나라 자본주의의 초석을 다진 분 중 한 분이라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6·25 전쟁 후 폐해 속에서 최초로 근대적인 공장을 지으면서 40여 개의 기업을 창업 또는 인수 경영하면서 사업보국의 험난한 길을 걸어오셨다. 그리고 “기업 경영자에게는 적자를 내도 형법상 잡아가는 조항은 없지만 그것은 국민에게 큰 죄를 짓는 것이다”라고 강조하셨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첫째는 이익을 내서 건실하게 운영하는 것이니 기업의 존재이유를 잘 생각하라고 하셨다. 인수는 어쩔 수 없이 맡아야 하는 것이었고, 새롭게 만드는 것을 좋아하셨다. “헌 집을 뜯어고치는 것보다는 새집을 짓는 것이 훨씬 편하고 좋다”고 이야기하기도 하셨다. 70년대 정부가 사금융을 제도금융권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단자회사법을 만들었을 때 정부가 정책효과 극대화를 위해 가장 먼저 삼성에게 참여해 줄 것을 중용했다. 하지만 “그거, 고리대금업 아닌가? 그렇게 해서 돈 벌 생각 없다”라고 하면서 한 마디로 거절하셨다.

5·16군사정변이 일어났을 때 명동의 한 호텔에서 이 회장을 만난 박정희 대통령은 “우리가 혁명을 해서 정권을 잡았지만 경제는 잘 모릅니다. 어떻게 해야 경제를 살릴 수 있겠습니까?”라고 자문을 구했다. 이 회장은 당시 혁명정부가 부정축재자라는 죄목으로 잡아가둔 서대문구 치소의 경제인들을 풀어달라고 진언했다. 그리고 울산에 공업단지를 제안하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국내 저축으로는 어려우니 외자를 유치하여 경제건설을 하자고 했다. 그리하여 울산공업센터 설치를 위한 투자유치단을 만들어 단장으로서 역할을 했다.

당시 일본을 자주 다니면서 전자산업이 우리나라가 나아갈 방향이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고 봤다. 그리고 사돈관계인 금성사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전자산업에 진출했다. “독점산업은 언제든 깨어지게 되고, 경쟁자가 있어야 발전할 수 있다. 경쟁력 있는 외국기업이 들

어와서 선점하는 것보다는 국내기업이 함께 발전시키는 것이 옳다”고 선언하고 1969년에 전자산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렇게 해서 지금의 세계적인 기업, 삼성전자가 탄생한 것이다.

### 논어(義)와 주판(利)의 합일(合一)

간혹 이병철 회장에 대한 비판과 오해가 있지만, 본인은 진솔하게 국가를 위해 노력해 왔다. 한국비료 사건 등은 <호암자전>을 통해서라도 밝히시지 않을까 했으나 본인이 끝까지 십자가를 지고 가셨다.

단순히 기업가로서 이 회장을 바라보면 그분의 반쪽만 보게 된다. 나머지 반쪽은 도의문화의 창달과 사회공헌사업을 통해 이 사회를 살기 좋은,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만들려고 노력한 점을 높이 평가해야 할 것이다.

55세 생일 때 재산을 평가하여 그 3분의 1을 종업원의 복지를 위해 내어 놓았다. 삼성공제회를 통해 국가가 하지 못한 의료비 보조, 학비 보조 등의 복지증진사업을 전개하기도 했다. 삼성미술문화재단을 설립하여 문고출판, 효행상의 시행 등 도의문화 창달을 위해 애썼다. 또한 성균관대학교를 통해 2세들에게 인성교육을 하고 윤리와 도덕을 갖춘 미래인재들을 육성하는데 힘썼다.

한 손에는 ‘주판’을 들고, 다른 한 손에는 <논어>를 들고 우리나라가 제대로 된 선진강국이 되기 위한 길을 외롭게 개척해 나갔다. 생전에 많은 오해와 비난이 있었지만 모두 인내로 참아냈다. 후세 역사에 평가를 맡기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분은 이(利)의 세계에 있었지만 의(義)를 버리지 않았고, ‘의리합일(義利合一)’을 터득한 분이셨으며, ‘논어와 주판의 합일(合一)’을 이루신 분이라고 믿는다.

### 성경(義)과 주판(利)의 합일(合一)

또 한 분의 스승이 김수환 추기경이다. 성직자는 당연히 이웃에 사랑을 실천하고 소외되고 가난한 이들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그런 것은 우리도 알고 있지만 실천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삶을 사신 김 추기경을 존경하는 것이다.

김 추기경은 가난한 사람들을 보살피면서 가난의 극복을 생각했던 분이다. 나라의 경제가 발전해야 가난한 사람들을 구할 수 있다고 믿었다. 의(義)의 세계에 사셨지만 이(利)를 결코 경시하거나 소홀히 한 적이 없었다.

나를 만날 때마다 신앙의 문제보다는 주로 경제문제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셨다. 경제에 대한 지식도 일반의 수준을 넘는 것이었다. 그 분은 ‘성경과 주판의 합일(合一)’을 보고 계셨던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분은 결코 사업하시는 분들을 경시하지 않았다. 성경에는 부자를 야







단치는 구절이 있지만 반대로 자기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늘리지 않고 그저 땅에 묻어둔 종을 게으른 종이라고 야단치는 구절도 있다. 정당하고 올바르게 축적한 부는 비난받을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정당하게 벌어서 좋은 일을 하는 것이 선(善)이라고 본다.

서강대 총장으로 취임할 때 김 추기경께 축사를 부탁드렸더니 “내가 꼭 가서 축사를 해야겠는데 건강이 안 좋아서...” 하시면서 약속은 하지 않으셨다. 나도 내 도리로써 인사를 드린 것이기에 못 오셔도 섭섭할 일은 아니었다.

그런데 추기경께서 취임식 며칠 전에 원고를 쓰면서 몇 가지 확인할 게 있다면서 전화를 주셨다. 내가 감동한 것은 추기경께서 내 취임식에 오시기 위해 병원에 입원해 몸을 추스르고 계시면서 축사 원고를 쓰셨다는 사실이었다. 이처럼 추기경으로부터 큰 사랑을 받았다.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쯤 KAIST 교수로 있는 조카사위를 나에게 보내셨다. 그 분 말씀이 추기경께서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려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제대로 발전해야 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다. 국민들이 정직하고 높은 윤리 및 도덕의식과 강한 준법정신이 필요한데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라고 걱정하시면서 이 문제를 나와 상의해 보라고 해서 나를 찾아왔다는 것이다.

추기경께서 돌아가신 후 이 유지를 어떻게 실천할까 고심하던 끝에 추기경의 비서신부로 오래 동안 일하신 가톨릭대 박영식 총장 신부와 평소 추기경을 지근에서 모셨던 신치구 장군 등 몇몇 뜻있는 분들과 상의를 거듭한 끝에 지난 4월 20일 가톨릭대에서 ‘김수환추기경연구소’ 개소식을 갖게 되었다.

앞으로 이 연구소는 총파를 초월해서 김수환 추기경의 사랑과 나눔, 남을 배려하는 정신과 함께 정직·윤리·도덕·준법정신과 같은 덕목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하는 것을 연구하고 보급하는 일을 하게 된다.

### 신뢰사회의 구축

도산 안창호 선생이 미국에서 공부하던 시절, 거짓말하고 정직하지 않게 일하던 교민들이 상투 틀고 싸우던 것을 보았다. 이 때 ‘정직’을 강조하여 미국에 이민 간 우리 교민들을 일깨우고, 교육을 통해서 실천한 ‘정직’이 현 시점에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당시 교육을 통해 변한 교민들을 보고 농장주가 지도자인 안창호를 만나고자 했다. 이 만남에서 도산은 교육 장소가 필요하다고 돈을 빌려달라고 했고, 농장주는 흔쾌히 기간도 정하지 않고 돈을 빌려주었다. 그리고 도산은 한 달 만에 빚을 갚아버렸다. 그 후에도 농장주는 지속적으로 도와주었고, 도산 안창호기념관을 세워 그를 기념했다.

이처럼 현재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후쿠야마 교수가 이야기한 ‘신뢰(trust)사회의 구축’이며, 미국 조지 메이슨대의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부캐넌 교수가 말한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과 ‘도덕적 자산(moral asset)’의 축적이라고 생각한다.

사실 국부를 증진시키는 기업가야말로 가장 존경받고 높이 평가되어야 할 것인데 왜 그렇지 못할까. 그것은 우리 기업인들이 이(利)를 쫓지만 의(義)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우리 기업인들이 ‘노블레스 오블리주’ 즉, 가진 자의 도리를 다하지 못하고 있는데서 비롯된 것이다. 우리 사회가 행복하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이웃과 서로 더불어 사는 함께 가는 따뜻한 시장경제가 실천되어야 한다.

오늘을 사는 우리 기업인들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다. 우리가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정직과 높은 윤리도덕의식, 강한 준법정신이 있어야 한다. 기독교 신자들은 ‘성경과 주권의 합일(合一)을 이루고, 유교 전통을 따르는 분들은 ‘논어와 주판’의 합일(合一)을 이루어 대한민국을 세계 초일류의 제대로 된 선진국으로 만들어 나가는데 앞장서 주시길 간절히 소망한다. **K&M**

Issue & Seminar 2

김영호 유한대학교 총장

6월 3일(목) 롯데호텔(소공동) 2층 에메랄드룸



## ISO26000시대의 한국기업의 새로운 과제

21세기 세계경제에 새바람이 불고 있다. '사회적 책임(Social Responsibility)'이라는 개념이 새로운 화두가 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취임 연설에서 '새로운 책임의 시대(A New Era of Responsibility)'를 표방했다. 그리고 월가에 금융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있다. 며칠 전, 집권당이 된 영국의 신임 수상은 무엇보다도 새로운 책임의 리빌딩(rebuilding)을 표방하고 그것을 추진하겠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

### 사회적 책임은 21세기의 새로운 화두

'책임'이 화두가 된 것은 최근의 일이다. 지금까지 책임은 종교에서 또는 윤리학자, 도덕운동가들이 묻던 것이었고, 차츰 NGO에서 책임을 물었는데, 이것이 점차 정치, 경제, 금융, 기업의 한 복판으로 들어와서 이제는 책임이 경제와 기업의 중심 화두로 등장하게 되었다. 이제는 사회적 책임이 인류시대를 이끌어가는 기본 화두가 된 것이다.

사회책임, SR은 이제 어딜 가도 접할 수 있는 말이 되었다. 기업경영에서도 품질경영을 반영하는 ISO9000이 기업의 중심 테마였지만 점차 환경경영이 중심테마로 바뀌고 있다. 특히 엘론 사태 이후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것이 환경경영이다. 그리고 리먼 브라더스의 붕괴로 윤리경영이 화두로 떠올랐다가 이제는 지속가능경영 혹은 사회책임경영으로 바뀌고 있다.

SR은 기업경영만이 아니고 여러 부분에서 다양하게 일어나고 있다. 지난 5월 코펜하겐 회의에서 사회책임에 대한 세계 표준이 ISO26000으로 사실상 확정됐다. ISO26000은 어느 한 단체의 캠페인도 아니고, 어느 학자의 학설도 아니다.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ISO를 모두 종합한 것으로 앞으로 몇 가지 준비과정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실시하기로 확정됨으로써 본격적인 ISO26000시대가 열렸다.

일본에서는 2005년을 전후로 각종 언론에서 ISO26000, SR을 특집으로 다루기 시작했다. 당시 나도 일본에 있으면서 관계회의에 참석해서 토론과 발표를 했던 기억이 난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이 바람이 불지 못했다. 매스컴에서도 이 문제를 크게 다루지 못했고, 다룬다 해도 소극적이었다. 나는 이것을 대단히 중요한 문제로 생

각하고 정부에 준비를 권유했고, 관련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사실 이번 코펜하겐 회의를 한국에서 개최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다. 기후변화에 따라 교토의정서가 채택된 것처럼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는 서울프로토콜이 형성되어서 21세기 세계 기업에 새로운 바람이 일어나기를 원했다. 그리고 실제 마지막 총회는 한국에서 열리는 것으로 내정되었다. 하지만 작년부터 정부의 입장이 소극적으로 돌아섰고, 작년 퀘백회의에서 우리나라는 반대표를 던졌다.

그러나 ISO26000은 세계적인 대세이고, 한국이 하지 않겠다고 해서 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여기에 참여한 76개국 대다수가 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세계의 중요한 경제단체, 환경단체들이 여기에 가입해 세계적인 바람이 불고 있다. 결국 한국도 이런 흐름에 따라 금년에는 찬성표를 던졌다.



## SR에 소극적인 한국 기업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이 문제에 대해 우리나라 매출액 1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 그런데 59%의 기업이 여기에 전혀 대비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기업은 5% 미만이었다. 주목할만한 것은 이 조사 보고서의 제목이 '새로운 무역 장벽으로서의 ISO26000'이다. 일본은 같은 형식의 보고서 제목이 '새로운 무역의 찬스로서의 ISO26000'이다.

한국에서는 80~90개의 기업이 지속가능리포트로 내고 있다. 일본은 약 1500개의 회사가 지속가능리포트가 아닌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리포트를 내고 있다. 한국에서는 지금도 '기업이 좋은 상품을 싸게 개발해서 소비자에게 공급하고, 노동자를 고용하면 됐지 무슨 사회적 책임이냐하는 거부반응이 있다. 우리 기업의 일반적인 정서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지속가능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차이는 크지 않다. 그러나 앞으로의 대세는 CSR이 분명하다. ISO에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만이 아니고 모든 사회적 주체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뜻으로 CSR에서 C를 빼고 SR로 이름을 바꾸었다. 그래서 ISO26000은 SR에 대한 국제표준이 되는 것이다. 이것은 기업, 노동자, 소비자, 금융, 정부, NGO 등에서 모두 SR을 기본적인 컨셉으로 받아들이고 SR끼리 하나의 시스템이 이루어지는 출발점을 의미한다.

## 기업이 CSR에 적극적이어야 하는 이유

SR 중에서 CSR만 조금 더 말씀드리겠다. ISO26000의 기본구조를 보면 SR의 핵심 주체가 조직의 지배구조이다. 그 중에서 인권, 노동관행이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고, 환경, 공정한 운영 관행, 소비자 이슈, 지역 사회 참여 및 지역사회의 발전 등이 기업이 가지는 사회적 책임의 핵심 주체이다. 기업만이 아니고 모든 단체가 짊어져야 할 사회적 책임은 바로 이런 이슈들에 대한 대응을 하는 것이다.

사회적 책임의 7가지 원칙은 설명책임을 져야 하고, 투명성을 가져야 하고, 윤리적 행동, 이해관계자의 이해를 존중해야 하고, 국제행동 규범준중, 인권준중 등이다. 7가지 원칙을 하나하나의 이슈에 적용해서 이것을 국제표준으로 만들었다. 이것은 종래의 ISO9000, ISO14000, ISO22000 등의 여러 강물들을 종합한 거대한 통합의 바다이기도 하다. 지금까지의 ISO는 대부분 인증제였지만 ISO26000은 검증제이다. 각 기업에 가이드라인을 줘서 ISO26000을 잘 하고 있는지 검증하는 것이다. 언뜻 보면 인증제보다 매우 약한 것 같지만 사실 여기에 무서움이 있다. 사실 많은 인증제가 돈만 주면 살 수 있어 인증을 받지 않은 기업이 없을 정도이다. 그러다 보니 인증을 받았다고 해서 특별히 신뢰받거나 유리하지 않은 상황이 되었다. 이런 상황이 올 때까지 인증제에 관

한 부패 문제가 세계적으로 심각한 이슈가 되고 있다.

이번 도요타자동차 사태에 대해 소비자의 검증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매스컴을 통해 충분히 목격했을 것이다. 이런 사례를 거론할 때 미국의 GAP 이야기를 많이 한다. 세계 굴지의 의류업체 중 하나인 GAP은 연간 매출액이 한화 30조 원이 넘는다. 그런데 인도의 하청업체에서 아동의 저임금, 노동력 착취 문제가 NGO활동에 의해 발각되면서 세계적으로 GAP 상품에 대한 불매운동이 벌어졌고, 한 달 만에 매출액이 25%의 감소했다. 2년이 지난 지금도 감소세는 회복되지 않고 있다.

GAP도 인증 받은 것이 있겠지만 세계 소비자들의 검증에 실패하면 경영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제는 세계의 소비자, 세계의 NGO, 세계의 시민사회, 세계의 노동자의 평가에 기업의 운명을 맡기는 상황이 되었다. 그 평가가 기업의 이익을 좌우하는 상황에 대응해서 CSR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착한 자본주의 하에서 착한 일을 할 때는 남이 모르게 하는 것이 윤리적인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기업이 경영활동의 일환으로 CSR을 하는 것은 PR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리고 이를 마케팅으로 활용해도 좋다. 그리고 SR의 결과가 재무적 성과로 연결되어야 한다. 그러한 경영기법 없이 SR을 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한 일이다.

세계화시대 치열한 경쟁 속에서 기업이 가격경쟁, 품질경쟁만 해서는 경쟁에서 이길 수 없다. 여기에 사회적 활동, 이미지 활동, 윤리 활동, 봉사활동, 소비자의 안전에 대한 책임, 세계 기후문제에 대한 책임 등이 포함되어서 상품의 이미지를 결정하고 사회적 평가를 결정하고, 그래서 마케팅이 이루어지고 이것이 실제 판매로 연결되어야 한다. CSR을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 금융권에 부는 SR바람

금융에도 SR바람이 불고 있다. 세계적으로 헤지펀드의 비중이 감소하는 반면, 사회책임투자 펀드(SRI, (Socially Responsible Investment)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SRI펀드의 세계 비중이 5조 달러가 넘는데 반해 헤지펀드는 3조 5천억 달러이다.

CSR 지수가 높은 기업에 들어가는 SRI 자금이 한국에 대량으로 들어오면 한국경제의 경쟁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데 SRI 자금이 한국을 외면하고 있다. 한국의 선진화의 핵심 문제는 SR에 있다는 점을 정부와 기업체는 좀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보다 더 무서운 것이 사회책임소비(SRC)이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 기업의 제품은 사지 않겠다, 혹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의 제품은 값이 좀 비싸더라도 사겠다는 것이 SRC이다. 세계 소비자들의 일반적인 반응은 제품가격이 15% 정도 비싸다면 환경에 유리한



## 이간개발경영차연구회



기업의 제품을 사겠다고 한다. 소비자 권리를 찾던 소비자들이 요즘에는 소비자 책임을 강조하기 시작했다. 작년에는 국제적으로 소비자책임의 날을 제정하기도 했다. 소비자가 책임을 진다는 것으로 CSR을 잘 하지 않는 기업의 제품은 사지 않겠다는 뜻이다.

비엔나대학의 마틴 교수는 한국에서 정식으로 노조를 인정하지 않는 대기업은 머지않아 유럽의 NGO, 소비자단체, 노조의 거대한 반대운동에 부딪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경고를 무시하다가는 일본의 도요타 자동차가 겪은 사태를 똑같이 겪을 수 있다는 경고메시지다.

기업이 CSR을 하게 되면 그 기업체의 노동자도 사회적책임노동(SRL)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외국도 그렇고 한국도 이제는 사회적책임노동이라는 형태의 노조가 생겨나고 있다. 이렇게 되니 정부가 SRI 자금을 대해서 조세 상 이득을 주지 않을 수가 없고, CSR을 열심히 하는 기업에 대해서 이득을 주지 않을 수 없다. 또 그런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여러 가지 혜택을 주지 않을 수 없다. 결국 사회적책임정부(SRC)가 등장하게 되는 것이다.

### 흥부자본주의시대의 도래

내가 가령 천만 원의 돈을 가지고 착한 투자를 하고 싶다고 하자. 그래서 착한 기업에 투자하는 SRI펀드에 이 돈을 맡겼다. 그럼 SRI 펀드는 이 돈을 CSR을 잘 하는 기업에 투자한다. 그러면 그 기업의 노조가 SRL로 순응을 한다. 소비자단체는 이런 기업의 제품을 산다.

그리고 정부는 조달시장을 비롯해서 조세금융 상의 혜택을 준다. 그러

면 CSR을 잘하는 기업은 많은 이익을 얻으며, 착한 투자를 한 나에게도 배당이 많이 온다. 착한 일을 하면 돈을 많이 번다는 상황이 꿈이 아니라 현실로 벌어지는 것이다.

착한 일을 하면 대박을 터뜨린다는 흥부전의 스토리가 흥부전에서는 다소 신화적으로 비쳐졌지만 이제는 현실이 된다. 사회적책임경영, 사회적책임노동, 사회적책임소비, 사회적책임투자, 사회적책임정부 등이 서로 매트릭스로 묶이고 시스템화하고, 사회경제체제가 된다면 이것이 사회적책임자본주의가 된다.

사회책임자본주의, 흥부자본주의가 오고 있다. 단, 사회적책임자본주의보다 흥부자본주의가 다소 신화적이긴 하지만 더 깊은 의미를 지닌다. 사회적책임자본주의가 PR 쪽에 연결된 표면적인 측면이 강하다면 흥부자본주의는 내면적인 곳까지 연결되기 때문이다. 세계는 흥부의 신화가 시스템적으로 실현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또 그렇게 가야한다.

정부나 한국기업은 이것을 소극적으로 무역장벽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기회라고 생각해야 한다. 코펜하겐 회의에서 중국과 인도가 반대한 것은 그 기준을 따라가기 힘들어서다. 반면 유럽은 기준에 하던 대로 하면 되니까 쉽다. 한국도 물론 힘든 면이 있지만 이번 회의에서 기준이 낮아져 조금만 노력하면 맞춰나갈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유럽과 동일한 수준에서 게임을 할 수 있으므로 한국에게는 위기가 아니라 기회이다. ISO26000을 잘 활용한다면 한국기업에 봄소식을 전해주는 봄바람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을 피하면 한국기업에 대한 북풍이 될 것이다. 이를 외면하는 일을 정부나 기업이 하지 않기를 바란다. KPM

# 창작으로 나는 회복할 수 있었고 창작으로 나는 건강하게 되었다



“창작으로 나는 회복할 수 있었고 창작으로 나는 건강하게 되었다.” 하인리히 하이네(Heinrich Heine)가 한 말이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예술치료센터가 뭐하는 곳이죠? 예술치료가 뭐예요?”라고 생소한 듯 궁금해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하지만 사회가 급변하면서 삶의 가치와 건강에 대한 인식이 신체의 건강뿐 아니라 마음, 정신의 건강에까지 미치게 되면서 예술치료(Arts Therapy)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 예술표현은 인간의 창조적 능력 발현의 매개체

미술, 무용, 연극, 음악 등 시공간감각적인 예술 활동을 통해 치료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은 ‘예술치료’라는 독립된 분야가 생기기 이전부터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 받아왔다. 물론 그림을 열심히 그리고 춤을 추고 음악을 듣는 것만으로 심리적 안정을 얻거나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내면에 쌓인 문제와 갈등을 긍정적으로 분출하고 드러내는데 예술을 통한 창조적 작업이 효과적이라는 것은 전문가가 아니라 예술 활동에 집중해 본 기억이 있는 사람이라면 쉽게 동의할 수 있을 것이다. 창조성은 사람들이 가진 여러 가지 문제 해결 능력 중에서 매우 강력하고 탁월한 능력이다. 이 창조적 능력이 발현되는 가장 쉽고도 보편적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예술표현이다.

인류의 공통 언어인 예술, 예술적 표현은 선사시대부터 시작된 인간의 본능적 창조심리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에게나 필요하다. 다시 말해 그것이 종교적인 이유든 사회학적인 이유든 간에 분명한 건 표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인간의 내적 욕구를 가장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돕는 매개체가 바로 예술이라는 것이다.

이처럼 창조적 과정에서 드러나는 다양한 표현들을 바탕으로 심신 건강이라는 치료적 목표를 성취하고자 생긴 분야가 바로 예술치료이다.

### 예술치료의 본질은 창작과정

예술치료의 실효성은 여러 분야에서 입증되고 있다. 그러나 ‘치료(Therapy)’란 용어로 인해 ‘심리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병든 사람’, ‘말 안 듣는 아동’에게만 필요한 것이라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예술은 누구에게나 특별한 효과를 발휘한다. 예술이라는 매개체는 스스로를 건강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에게도 보다 나은 삶의 질적 향상과 건강 유지를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



● 김현진 대표

김현진 대표는 귀금속디자인사로 일하다가 예술 치료사가 되었다. 현재 (주)아트앤마인드 예술치료센터를 경영하고 있다. 또한 (사)예술과 인간개발의 상임이사로 해외봉사 및 한 부모 가정, 소년원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하고 있다.



하다.

예술치료는 인간본연의 자기치유성(Self-healing)과 창조성(Creativity)의 믿음을 바탕으로 자발적 자기표현을 촉진시켜 내면의 넘치는 잠재력을 스스로 발견하고 변화하며 성장해나가는 것이 그 목적이다. 예술치료의 본질은 창작과정이다. 춤추고 그리고 노래하면서 자기를 마음껏 표현해나가는 과정 속에서 심신의 건강을 회복해나가며 삶에 대한 새롭고 성숙한 시각을 갖게 된다.

예술은 인간 모두의 마음을 움직이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다. 세계 최고 빈민가의 청소년들에게 꿈과 새로운 인생을 가져다준 베네수엘라의 엘 시스테마(El Sistema) 사례를 보면 진정한 의미를 알 수 있다.

엘 시스테마는 빈민층 청소년들에게 무료로 악기를 제공하여 클래식 교육을 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한 음악교육이 아닌, 마약과 범죄의 유혹에 방치되어있는 이들에게 삶을 음악의 선율로 바꿔주는 나눔이었다. 이 교육을 통해 많은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였으며, 특히 LA필하모닉 음악감독이자 세계적인 차세대 지휘자인 구스타보 두다멜은 엘 시스테마가 키워낸 대표적인 인물이다. 현재 엘 시스테마는 25만 명의 아이들에게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을 전하고 있다. 이것은 예술이 가진 치유력과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긍정적인 힘을 시사한다.

### 무한한 힘을 가진 예술에 행복의 해답 있어

최근 우리사회에서도 기업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술의 진정한 가치를 이해하고, 이를 통해 아름다운 나눔을 실천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예술을 통한 나눔은 교육, 평등, 다양성, 건강 및 복지 등 여러 사회문제 해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예술은 우리 모두가 달성해야 할 사회적 목표를 공유하고, 이 목표 실현을 위해 함께 공동의 노력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예를 들어, 소년원의 예술치료 적용은 우리의 무관심으로 인해 본의 아니게 범죄자가 되어 불안과 절망 속에서 살아가는 청소년들에게 일방적이고 틀에 박힌 교육이 아닌, 예술을 통해 마음의 흉터를 치유하며 자신의 소중한 가치를 깨닫게 하는 기회를 만들어 주고 있다. 이 같은 접근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이 청소년들의 늘어만 가는 재범을 예방하고 건강한 미래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희망을 꿈꾸게 한다.

이 외에도 우리사회가 끌어안고 함께 행복을 향해 나아가야 할 소외계층에 있는 소년소녀가장, 장애우, 한 부모가정, 다문화가정과 함께 예술로 교감하며, 꿈과 희망을 나누는 기회가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중요한 사실은 예술이 치료적이든 교육적이든 유희의 목적이든 분명한 건 우리는 누구나 자신을 건강하게 표현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다 함께 소통하며 감동을 나눌 수 있으며 예술의 창조적 경험이 우리 인간성장을 위한 강력한 매개체라는 것이다.

예술은 무한한 힘이 있다. 또한 먼 곳에 있지 않다. 우리삶 속 매 순간에 있고, 끊임없이 우리는 창조의 순간을 만들어 낸다. 그러나 각박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종종 내면의 잠재력을 잃기 십상이다. 인간만이 가진 상상하고 창조하는 능력을 예술을 통해 표현하고 소통하고 함께 나누면서 질곡 많은 삶 속에서 위기를 극복하자. 나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아름다움을 일구는 행복의 구심점으로 만들어 보자. 표현을 통해 변화하고 삶의 생동감을 살리는 것, 행복의 해답은 예술에 있다. K&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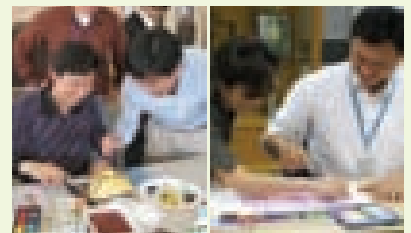
“우리아이는 심한 과잉행동으로 약물치료를 받고 있지만 기초생활 수급자인 우리 가정에서는 약값과 진료비조차 부담스럽기만 합니다. 아이에게 자신이 잘하고 좋아하는 특기인 미술을 통해 자신감을 북돋워 줄 수 있다면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쓸모없고 비난 받는 아이가 아니라 소중한 아이라는 것을 느끼고 하나의 멋진 사회인으로 성장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림동 놀이방 아이의 부모



“처음 했을 때는 ‘이게 뭐야?’ 했는데, 뭔가... 내 마음 표현을 춤추고 그림으로 그 어떤 것을 표현하는 게 좋아요. 또 선생님이 내 작품에 관심 가져주시고 이야기를 잘 들어주시니까 더 좋아요. 특히 손 재주가 없는데 하려고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인양소녀원 ○○○



창의성, 감수성이 중요한 코드가 된 요즘 기업문화에서도 사원의 스트레스관리 및 자기계발 등에 다양한 예술 활동이 적용되고 있다.

CoverStory

이상철 LG U+ 부회장

정리 · 정용달 홍보팀장 (dal2020@khdi.or.kr)



통신 그 이상의 통신서비스로

새로운 고객가치  
만들어 가는 LG U+

사진 · 오경근 원장

“통신산업에 대한 마인드를 바꾸지 않으면 통신은 더 이상 발전이 없습니다. 상품과 상품의 단순 결합이 아닌 상품과 서비스, 서비스와 서비스가 융합하는 서비스컨버전스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사명을 바꾸고 탈통신으로의 출항을 선언하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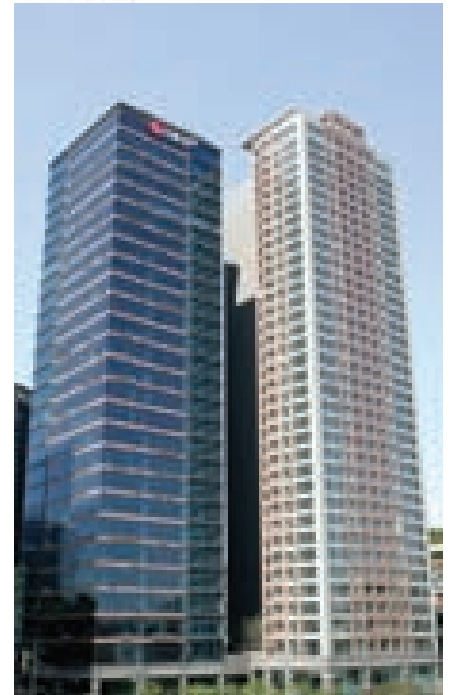
통합LG텔레콤이 10년 이상 사용해온 사명을 버리고 7월 1일자로 'LG U+'로 새롭게 태어났다. 버림의 미학과 유무선융합(FMC)서비스로 새로운 경쟁을 주도해 만난 3위 사업자라는 이미지를 벗어버리겠다는 의지가 적극 반영된 조치다.

포화상태인 통신산업에서 새로운 블루오션을 찾기 위한 임무의 선봉에는 이상철 부회장이 나섰다. 지난 1월 통합LG텔레콤 부회장에 취임한 그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정보통신전문가다. 10년 만에 업계로 돌아온 이유도 우리나라가 IT강국의 위상이 사그라지는 게 안타까워 잘못된 방향을 바로잡아 IT강국의 지위를 되찾는데 일조하고 싶어서라고 말한다.

소통을 중요시하는 이 부회장은 현장을 방문하거나 사내의 블로그를 통해 직원 및 고객들과의 거리를 좁히려 노력하기도 한다. 마케팅이나 비전도 중요하지만 소통이 조직의 결속력을 다지는 엄청난 파워를 발휘하기 때문이다.

전 세계 통신업계가 벤치마킹할 LG U+만의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보이겠다는 이상철 부회장을 만나 '탈통신전략'과 '버림의 미학'을 통한 새로운 사업영역과 함께 업계의 변화를 주도할 회사 비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대담 : 장만기 인간개발연구원 회장



신사옥에서 새롭게 출발하는 LG U+

**통합LG텔레콤이 10년 이상 사용한 사명을 버리고 7월부터 LG U+로 새롭게 태어나게 됐습니다. 사명 변경의 배경과 함께 의미를 말씀해주시죠.**

**이상철 부회장:** 올 초 LG그룹의 통신 3사인 텔레콤, 데이콤, 파워콤이 합병해 새출발한 것이 통합LG텔레콤인데요. 우리나라 통신산업 자체가 포화상태인 현시점에서 이제는 통신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해야 합니다. 기존의 통신 영역을 넘어서는 통신 그 이상의 통신, '비온드(beyond)텔레콤'이 필요하다는 거죠. 통신산업의 망망대해에서 조금만 생각을 바꿔 새로운 블루오션을 찾자는 겁니다.

그러다보니 '텔레콤'이라는 말을 더 이상 쓸 수 없었습니다. 결국 통신의 이미지가 떠오를 수 있는 알파벳 T와 C는 제외하기로 하면서 10년 넘게 사용한 사명을 LG U+(LG유플러스)로 바꾸게 된 겁니다. 'U'라는 글자는 심플하면서도 여러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You, 당신'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 '당신에게 새로운 가치를 부여한다'는 의미의 플러스를 더해 모든 것을 고객중심으로 생각하고 실행하겠다는 각오와 함께 고객에게 새로운 가치를 더해주는 회사, 유비쿼터스를 선도해나가는 회사가 되겠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 LG텔레콤에 이은 LG U+만의 강점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상철 부회장:** LG그룹 전체로 보면 기업이 가야 할 정도의 문화를 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 이렇게 발전해야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문화라고 할 수 있죠. 고객중심경영이 기업의 궁극적인 목표이자 가야할 방향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가장 근접한 곳이 LG그룹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면 LG유플러스는 3곳의 문화가 합쳐진 곳인데, 여기에 제가 오면서 새로운 CEO의 문화까지 더해졌습니다. 요즘 다문화가정이 우리사회의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 LG유플러스는 다문화기업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저는 이것이 결국 LG그룹이 지향하는 궁극적인 기업의 모습을 추구하는 한편, 다문화이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다양성을 최대한 살릴 수 있다고 봅니다. 기업문화 측면에서 좋은 문화들의 합을 통해 새로운 문화를 창출해낼 수 있는 좋은 기회이자 우리만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 사명변경을 통해 그동안 강조해온 탈(脫)통신 프로젝트가 본격 가동될 것으로 봅니다. 새로운 사업 영역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될까요.

**이상철 부회장:** 지금까지의 통신은 기존의 빨랫줄 통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마인드를 바꿔야죠. 빨랫줄에 가지를 주렁주렁 달지 않으면 더 이상 통신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과거에는 '상품+상품'의 단순결합이었다면, 앞으로는 '상품+서비스', '서비스+서비스'가 합쳐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야 합니다.

기존의 통신판은 경쟁 격화로 획득비는 증가하고 매출은 정체되면서 통신회사의 수익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비온드텔레콤은 기본개념 3가지의 탈통신을 주장합니다.

첫째, 홈 미디어 컨버전스입니다. 각 가정에서 사용하는 휴대폰, 집전화, TV, PC 등 다양한 디지털 기기를 하나로 융합해서 생활 속의 단말기서비스를 하는 겁니다. 둘째는 스마트 워크플레이스 구축입니다. 업무와 연관된 직원들이 하나의 네트워크가 되어서 직접 만나지 않고도 상호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게 하는 거죠. 셋째는 소셜 모빌리티를 지원하는 겁니다. 휴대폰을 통해서 모든 사회와 연결되는 이동서비스, 즉 소셜 네트워크서비스가 가능해지도록 하는 겁니다.

고객은 집에 머무르기도 하고, 직장에서 업무를 보기도 하고, 그 외 사회적 활동을 하기도 합니다. 이제는 이런 고객 한사람 한사람을 쫓아다니면서 융합된 서비스를 하겠다는 겁니다. 구름처럼 쫓아다니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겠다는 개념이죠.

탈통신을 위해서는 회사 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등 총체적인 혁신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단기간에 그 성과가 나오기는 쉽지 않습니다. 우선 올해는 탈통신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해로 'Light house project' 등을 수행하고 있고, 그 구체적인 성과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나올 것으로 봅니다.

Light house project는 모바일오피스, 유무선융합(FMC), 광고, 보안, 사물통신(M2M)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특히 모바일오피스의 경우 이랜드와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탈통신의 사업영역을 확대하기 위해 국내외 IT 선도기업과 전략적 제휴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우선 통신과 금융, 통신과 의료 간의 융합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으로 7월 비전선포식 이후 하반기에는 탈통신에 대한 성과들이 나올 것으로 기대합니다.

## 유무선융합서비스(FMC)의 일환으로 최근 '온국민은 yo'와 '02070'요금제를 발표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서비스인지 궁금합니다.

**이상철 부회장:** LG유플러스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자산은 100메가 급의 유선통신망 인프라와 170만 개에 이르는 와이파이가(Wi-Fi)존입니다. 그래서 유무선융합서비스에 가장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죠.



LG유플러스는 이랜드그룹에 모바일오피스를 구축할 예정이다



파격적인 요금제를 발표하는 이 부회장

이런 배경을 바탕으로 지난 6월 15일 가계통신비를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온국민은 yo'와 'OZ070'요금제를 발표해 7월 1일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고객들은 복잡한 요금제 때문에 어떤 요금제에 가입해야 할지 혼란스러운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나 '온국민은 yo' 요금제는 모든 가계통신상품을 망라하여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고객들 입장에서 저렴한 요금을 바탕으로 디지털 기기를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되는 '디지털 해방의 날'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이러한 파격적인 요금제를 출시하게 된 또 다른 이유는 업체가 이제는 비생산적인 보조금 경쟁을 멈추고,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요금과 서비스로 경쟁하자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년이면 전체 휴대폰 시장에서 스마트폰의 비중이 60~70%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스마트폰 대응전략은 어떻게 됩니까.**

**이상철 부회장 :** 일반적으로 스마트폰에서 쓸 수 있는 응용소프트웨어가 애플 앱스토어의 경우 20만 개에 이릅니다. 그런데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사실 이것 모두 사용하기는 힘들어요. 결국 스마트폰은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아무리 응용소프트웨어가 많아도 쉽게 찾아 쓸 수 없으면 소용없죠.

스마트폰은 앞으로 갈수록 인터넷을 중심으로 바뀔 겁니다. 응용소프트웨어도 각각의 회사가 운영하는 폐쇄적인 구조가 아니라 인터넷상에서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는 형태로 발전할 겁니다. 스마트폰에는 기본적인 응용소프트웨어만 탑재하고 필요한 것은 웹에서 다운로드하는 형식이죠. 그렇게 되면 나에게 맞는 스마트폰, '마이 스마트폰'이 시장의 대세를 이루게 됩니다. 결국 앞으로 우리 실정에 맞는 '한국형 스마트폰'이 필요해지는 거죠.

이미 LG전자에서는 '옵티머스Q'라는 스마트폰을 출시했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즐겨 쓰는 응용소프트웨어 100여 종을 넣어 한국형 스마트폰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금년 내로 한국형 스마트폰 7~8종을 더 내놓을 예정입니다.



한국형 스마트폰 옵티머스Q

**취임 직후 자사주 매입에 이어 6월 초에도 자사주 1만 주를 매입하셨습니다. '탈통신 전략', '버림의 미학'으로 CEO가 회사 비전에 확신을 가지는 메시지로 보이는데요.**

**이상철 부회장 :** 탈통신전략을 표방하면서 '버림의 미학'을 이야기했는데요. 버림은 매우 어렵고도 두려운 일이고 때로는 감내하기 힘든 고통이 따르는 일이지만 결국 버림에서 새로운 것이 나오게 됩니다. 겨울에 나뭇잎이 떨어지지 않으면 그 나무는 죽게 되는 것처럼 우리 회사 역시 보조금 경쟁, 휴대폰 요금 고수정책, 그동안의 관습들을 버려야 할 것으로 지목하고 앞으로 전개될 서비스컨버전스 경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회사 주식을 매입한 것은 어떤 이익을 얻으려고 한 게 아닙니다. 다만 CEO가 회사 주식을 매입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우리 회사가 가진 비전을 이해하고 공감하길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니다. 그에 따라 주가도 움직이겠죠. 7월 1일 비전선포식을 하면 투자자들이나 언론에서도 우리 회사 전망을 밝게 볼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리나라가 네트워크 인프라는 세계 최강이지만 이를 비즈니스로 활용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결국 IT강국의 입지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말씀인데요. 우리나라 기업에게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이상철 부회장 :** 우리나라가 한때는 IT강국이었다가 어느 순간부터 경쟁국들에 밀리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IT에 대한 비전보다 기존환경 속에서 누리고 만족하면서 살았기 때문이죠. 정부조차도 IT는 이제 식상하다, 하나의 일상제다, IT는 공기나 물처럼 늘 거기 있는 것이기 때문에 더 발전시키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



한 것 같습니다. 기업이나 정부 모두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 IT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는 것에 소홀해졌죠. 이것이 우리나라가 모바일 인터넷 혁명에 뒤쳐진 이유이기도 합니다.

사실 애플의 '아이폰'은 2년 전에 시장에 나왔지만 우리는 이를 안일하게 생각했어요. 인프라는 세계 제일인데, 그 인프라를 이용해 고객에게 무엇을 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은 겁니다. 아이폰은 휴대전화 키패드를 과감하게 없애고 넓은 화면, 응용프로그램 위주의 아이폰을 만들면서 버림의 미학을 실천했습니다. 결국 우리가 새로운 가치를 느낄 수 있는 서비스를 찾아야 함을 아이폰이 일깨워준 셈입니다.

### 평소 '소통경영'을 중요시하는 것으로 압니다. 부회장님의 소통경영은 기업이미지 개선에도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철 부회장:**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커뮤니케이션, 즉 소통입니다. 소통은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도구죠. 인간의 가치는 소통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회사라는 조직 역시 마케팅이나 비전도 중요하지만 소통이 가장 중요합니다. 소통이 이루어졌을 때 직원들이 회사에 대해 행복감을 느끼고 애사심을 키울 수 있죠. 그런 회사는 아무도 못 말릴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소통의 중요성을 알기에 평소 가능한 많이 보고 구성원들과 많은 대화를 하려고 합니다. 사내 블로그 'CEO NOW' 운영, 직원들에게 보내는 CEO메시지, 현장방문 등도 모두 소통을 위한 작은 노력의 시작입니다.

지난 2월 말에는 초·중·고에 입학하는 임직원 자녀들에게 축하편지와 함께 선물을 보내고 자녀를 출산한 직원들에게는 편지와 미역을 보내기도 했는데, 고맙다는 편지가 많이 오더군요. 그 중 독특하게 피아노 연주를 들려주고 싶다는 편지를 보내온 직원 자녀가 있어 지역방문 때 깜짝 방문해 함께 시간을 보낸 적이 있었어요. 이런 것이 작지만 큰 소통의 길이라고 봅니다.

한편으로는 고객들과의 소통도 중요하기 때문에 네티즌과 친근한 소통을 위해 사외 블로그 '스 와이-낭트 이상철(www.leesangchul.com)'을 오픈하고 가능하면 직접 글을 올리면서 고객들과의 거리를 좁히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취미로 즐기시는 바둑이 상당한 실력이라고 들었습니다. 바둑을 두다 보면 실제 경영에 접목할 부분이 많을 것 같은데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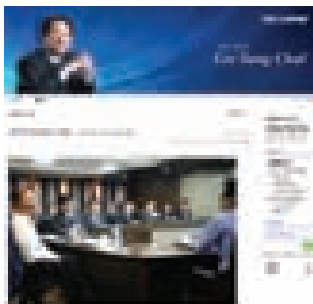
**이상철 부회장:** 바쁘지 않을 때는 가끔 바둑을 두며 시간을 보냈는데, 요즘은 그럴 여유가 없어요. 바둑TV에 나가 조훈현 9단, 이창호 9단과 대국을 둔 적도 있죠.

바둑을 두다 보면 여러 가지 사고가 필요한데, '정석을 다 외워라. 그리고는 잊어라'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정석을 외우는 것은 중요하죠. 하지만 주변 환경이 늘 똑같은 수가 없기 때문에 정석만 가지고는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외웠던 정석은 잊어버리고 변화무쌍한 환경에 대응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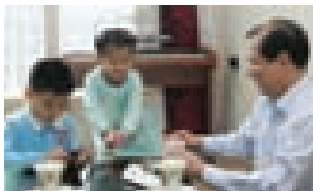
바둑에 '사대취소(捨大取小)'라는 게 있는데, LG유플러스가 이야기하는 버림의 미학과도 상통합니다. 큰 것을 버리고 작을 것을 취한다는 말이지요. 보이지 않는 것을 얻기 위해 때로는 내가 가진 큰 것을 버릴 줄도 알아야 합니다. 경영에서도 필요하다면 버릴 줄 알아야 합니다.

### 부회장님은 관·학·재계를 두루 거치셨는데요. 서로 다른 분야의 특징이나 차이점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상철 부회장:** 저는 첫 사회생활이 연구원이었는데, 사실 엔지니어들은 자기 분야에는 정통하지만 다른 분야는 잘 몰라요. 그러다가 경영을 맡게 됐는데, 처음에는 주주총회를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서 따로 교육을 받을 정도였죠. 어떠한 분야든지 처음 접하게 되면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리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 분야의 본질을



소통을 중요시하는 이 부회장이 부회장의 개인 블로그



소통을 중요시하는 이 부회장임직원가정 방문





이상철 부회장과 장만기 회장이 대담을 나누고 있다.

이상철 부회장은...  
**민·관·학·연 두루 거친**  
**국내 대표적인**  
**정보통신기술업계 전문가**

1948년 생으로 서울대 전기공학부를 졸업했다. 미국 듀크대에서 공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에서 통신위성 설계에 참여했고, 핵잠수함 무선통신 암호 프로젝트도 수행했다. 82년부터 91년까지는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차세대 이동통신기술개발에 기여했다. 91년, 한국전기통신공사로 자리를 옮겨 통신망연구소장, 무선사업본부장, PCS 사업추진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96년에는 한국통신프리텔(옛 KTF) 사장에 취임해 회사 성장을 이끌기도 했다. 2001년부터 한국통신 사장을 맡으면서 조직에 민간 마인드를 불어넣었고, 정부 보유 KT지분을 매각하는 작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2002-2003년 정보통신부 장관을 거쳐 2005-2009년까지 광운대 총장을 지냈다. 올해 초 통합LG텔레콤 부회장에 취임하며 10년 만에 통신업계로 돌아와 매년 3위 사업자라는 이미지를 깨뜨리기 위해 탈통신으로의 출항을 선언하고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그동안의 공로로 인해 국방과학상 은상(1987), 국방부장관표창(1991), 한국통신학회 통신경영대상(1999), 미국 듀크대 올해의 최고동문생(2004), 미국 듀크대 한국동문회 올해의 '자랑스런 DUKE동문상' [2009] 등을 수상한 바 있다. 옛 정보통신부, KT, 교수 그룹 등 탄탄한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으며, 아마 6단의 바둑 고수로도 알려져 있다.

얼마나 빨리 파악하느냐 하는 겁니다.

정부는 원칙과 명분이 필요합니다. 그 일을 왜 하는지, 또 어떤 명분을 지키면서 하는지가 중요하죠. 또한 원칙이 있어야 정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기업경영에서는 비전이 중요합니다. 조직을 한 몸으로 이끌어가는 비전이 확실해야 성장할 수 있습니다. 대학은 원칙이나 비전보다는 교육에 대한 확고한 철학이 있어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고 조직을 이끌어갈 힘이 생기게 됩니다.

**CEO로 재직하시는 동안 꼭 이루고 싶은 포부가 있다면 말씀해주시죠.**

**이상철 부회장:** LG유플러스의 비전은 통신을 넘어서는 새로운 장르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우리를 뒤쫓아 오도록 만드는 게 장기적인 목표입니다. 이 목표는 1년 만에 이루어질 수도 있고, 그 이상의 시간이 걸릴 수도 있지만 머지않아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조금만 생각을 바꾼다면 국내 3위에서 2위로 가는 것보다 전 세계 1위가 되는 것이 오히려 쉬울 수 있어요. 회사가 추구하는 가치, 방향에 중점을 둔다면 LG유플러스의 세계 1위는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전 세계 통신업계의 프런티어 역할을 하는 기업, 우리나라가 IT강국의 지위를 되찾는데 기여하는 기업, 전 세계가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가는데 있어 선도적 역할을 하는 기업이 되겠다는 각오로 경영에 임하겠습니다.

**부회장님께서 저희 연구원 활동에 관심을 갖고 발전을 위해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구원에 대한 제언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상철 부회장:** 진정한 교육은 학교를 졸업하면서부터 시작됩니다. 직장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하면서 실제 학교에서 배운 것보다 많은 것을 얻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인간개발연구원은 지난 35년간 우리나라 평생교육의 본산 역할을 해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연구원을 특히 좋아하는 것은 '인재개발연구원'이 아니라 '인간개발연구원'이라는 이름 때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정말 개발해야 할 분야가 '인간' 분야이거든요. 인제는 교육으로 가능하지만 인간개발은 교육을 넘어서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연구원이 우리나라에서 '인간개발'을 담당하는 사관학교로서의 역할을 다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통이 정말 중요한데요. 연구원이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교육하는데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진다면 인간개발 분야의 세계적인 기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합니다. KKH

# 우리 몸의 중심, 척추건강 챙기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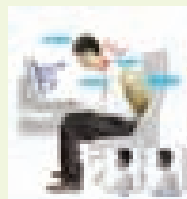


2006년 자생한방병원에서 직장인 2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 남성 104명, 여성 126명을 대상으로, 근무할 때 어떤 자세를 취하는지를 묻는 조사에서 1위는 42.4%가 답한 '등과 어깨를 구부정하게 앉는다'였다. 2위는 22.7%의 '다리를 꼬다', 3위는 19.7%가 답한 '목을 앞으로 꼭 내민다'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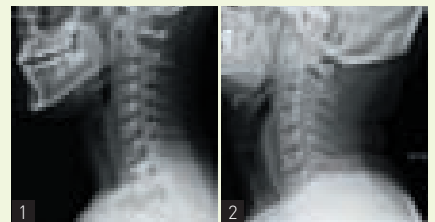
평소 스트레칭이나 운동을 하느냐는 질문에는 104명(45%)이 '한다'고 답했고, '안 한다' 또는 기타 답변이 126명(42.4%)이었다. 그 이유를 물어보니 잦은 회식, 야근, 직장 끝나고 너무 피곤해서 등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못한다는 것이다.

### 거북목증후군 목디스크 유발

직장인들의 요통이나 목의 빠근함, 만성피로의 가장 큰 원인은 책상에 앉아있을 때의 자세불량 때문이다. 대부분 장기 업무를 하다 보면 아래 그림과 같이 앉게 된다. 앉아있는 모양새가 거북이 같다고 해서 '거북목'이라고 부르는데, 이 자세를 많이 하게 된다.



- 목뼈가 빠지는 거북목
- 뒷목/ 어깨통증, 두통 유발!
- 목뼈의 C자 만곡이 사라짐
- 머리 무게 지탱, 과도한 긴장
- 뒷목/ 어깨 근육 통증



1 거북목증후군 일자목 X-RAY  
 2 거북목증후군 정상목 X-RAY  
 3 4 거북목증후군 나쁜 자세

이러한 거북목 자세를 많이 하면 목뼈의 혈액순환이 저해되면서 목디스크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 목뒤의 근육이나 인대가 과도한 긴장을 하면서 항상 어깨가 빠근하고, 뒷목이 뻐뻐한 증세를 늘 호소한다. 그리고 눈이 항상 피로하고 머리가 은근히 아프다. 평소에 이런 거북목 자세를 하고 있다면, 척추를 꼳꼳이 하고 컴퓨터를 보고 자판을 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 앉는 자세 나쁘면 만성 소화불량 걸려

또 장기 업무를 하다보면 정상적인 자세가 아닌 몸이 뒤틀린 자세로 앉아 있는 경우가 많다. 컴퓨터 업무가 아닌 장부정리나 글을 쓸 때 저절로 나오는 자세들이다. 학생들이 책상에서 책을 보고 글을 쓸 때 이 자세를 취하는 경우가 많다.

요즘 학생들에게서 디스크가 많이 발병된다. 과거 디스크 질환은 중년의 남성들에게서 많이 발병됐는데, 요즘은 학생들의 발병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초등학교 때부터 앉아서 수업을 듣는 시간이 길어지는 반면, 걷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필자가 초등학교에 다닐 때에는 버스 정거장 몇 코스를 걸어서 학교에 다니곤 했다. 부모님이 주신 버스비는 간식을 사먹는데 써 버리고, 한 시간 이상을 걸어서 집과 학교를 오갔던 기억이 있다. 당시에는 걷는 것이 습관화되었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요즘은 자가용, 버스, 지하철 등으로 통학하고, 웬만큼 가까운 거리도 택시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만큼 시간이 없고 바빠졌다는 이야기지만 그 결과 척추질환은 점점 더 대중화되고 있고, 디스크에 걸리는 연령대가 낮아지고 있다.



● 만성 소화불량과 척추

굽은 등뼈,  
비장과 위장의 운동 저해!  
- 등을 구부리면 몸 안 장기의 공간이 좁아져 운동능력이 저하된다.

몸이 뒤틀린 자세를 많이 하게 되면 등이 꼬이면서 위장으로 내려가는 혈액의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소화불량에 걸리게 된다. 위장으로 내려가는 혈액의 순환이 잘 되지 않으면 염증이 생길 수 있는데, 이로 인해 위장기능이 떨어지면서 만성 소화불량이 생기고 항상 속이 더부룩해지는 것이다. 많은 직장인 중에서 검사 상으로는 위장에 큰 문제가 없는데 속이 더부룩하고 답답한 증세가 있다면 혹시 내가 자세가 안 좋은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척추건강 1·2·3체조

자생한방병원에서는 척추를 건강하게 하는 캠페인으로 '척추건강 1·2·3체조'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매일 2회, 3분씩 하는 척추건강 1·2·3체조 운동 중에서 운전하거나 책상에 앉아있을 때 하면 도움이 되는 운동을 소개한다. 차가 많이 막히면서 허리가 아플 때나 책상에 오래 앉아 있어 어깨가 쭈시고 뒷목이 뻐뻐할 때 이 운동을 하면 좋다. 이 운동을 집이나 사무실에서 꾸준히 하면 다양한 척추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 많은 환자들이 이 운동을 하면서 몸이 회복되고 있다고 한다. **김민식**

척추건강 1·2·3체조



1.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앉아 양손으로 허리를 잡는다.



2. 한쪽 엉덩이를 들면서 동시에 같은 방향으로 어깨와 고개를 기울여 C자 모양을 만든다. 시원한 느낌이 들 때까지 좌우 반복한다.




3. 양손을 깎지 껴 뒷목을 감싸고 팔꿈치를 앞으로 모아 상체를 움츠린다.



4. 팔꿈치를 벌리면서 허리, 가슴, 어깨를 편다. 고개를 뒤로 젖히며 가능한 입을 크게 벌린다. 시원한 느낌이 들 때까지 반복한다.

● 신민식 원장



1963년 생으로 경희대 한의대 및 동대학원을 졸업했다. 광제국한의원 원장, 동서의학대학원 겸임교수, 광제의학회 회장, 대한추나학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경희대 한의학과 외래교수, 대한총명학회 회장, 자생한방병원 운영이사 및 척추디스크센터 원장, 의료상담원장으로 활동 중이다. <수험생동의보감>, <수험생한방건강교실>, <공부가 쉬워지고 일이 즐거워지는 두뇌혁명> 등의 저서가 있다.

손욱 포스코 이사회 의장  
(前 농심 회장)의 '감사경영'

# 기업 변화는 직원들 감동에서 출발

글로벌시대 무한경쟁의 파고를 넘어 초일류기업, 영속기업으로 생존하는 것이 기업의 근본 목표가 되고 있다. 이에 따른 CEO의 리더십과 경영노하우가 화두가 된 지는 이미 오래다. CEO는 수많은 경영트렌드 중 조직에 맞는 경영기법을 발굴 및 도입해 성과를 창출하고자 한다. 본지는 최신의 경영트렌드와 함께 이를 도입해 실천하고 있는 CEO들의 이야기를 조명해 본다. 이번 호에서는 손욱 회장의 경영혁신 이야기로 감사니눔신문 정지환 편집국장과의 인터뷰 기사를 소개한다.

- 편집자 주

### “변화의 중심을 달려온 것에 대해 감사하고 또 감사할 따름입니다”

손욱 회장은 인터뷰가 진행되는 동안 여러 차례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했다. 삼성과 농심에서 ‘감사경영’을 실천해온 손 회장은 얼마 전부터 개인적으로 감사노트를 작성해 왔다. 하루 동안 감사했던 일을, 설사 그것이 아주 사소하다 해도, 일과를 마무리하면서 3~5개씩 적고 있다. 마땅히 기록할 것이 없을 때는 그냥 ‘감사합니다’라는 말이라도 쓴다.

“삼성전자에 1975년 입사해 ‘변화의 중심에 서자고 했던 스스로의 다짐을 일관되게 지킬 수 있었던 것에 깊은 감사를 느낍니다. 삼성에서 일했기에 가장 앞선 경영론을 누구보다 빨리 배우고 현실에 적용해볼 수 있었지요. 1993년 프랑크푸르트에서 ‘마누라와 자식만 빼고 모두 바꾸자’던 이견희 회장의 ‘신경영 선언’ 당시에는 그룹 비서실 경영관리팀장(전무)으로, 삼성전자가 글로벌 초일류기업으로 용트림을 할 때는 혁신 업무를 총괄하는 전략기획실장(부사장)으로 뛴 수 있었 습니다. 그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난 4년 동안 농심이라는 새로운 기업 현장에서 고문과 회장으로 일하며 혁신을 주도할 수 있었던 것도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일입니다. 이제는 중요한 자리에 있으면서 얻었던 경험과 지식을 사회에 되돌려 주고 싶어요.”

### 다케다제과의 감사경영에 주목하는 이유

그렇다면 경쟁과 혁신을 지향하는 ‘한국의 잭 웰치’로 불리는 손 회장이 좀처럼 어울릴 것 같지 않은 감사에 몰입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그는 감사를 통한 개인과 조직의 성공과 행복의 진정한 가치 실현을 보여준 한 일본 기업 사례를 소개하는 것으로 그 설명을 대신 했다.

“제품의 성분 표시에 ‘100만 번 감사합니다 함유’라고 적는 회사가 있다면 믿겠습니까? ‘다마고 보로’라는 상표로 유명한 일본의 다케다제과는 공장 안에 24시간 동안 ‘감사합니다’라고 녹음한 테이프를 틀어 놓습니다. 결과적으로 제품이 출하될 때까지 ‘감사합니다’란 말이 100만 번 과자에 들어가는 셈이지요. 그뿐 아니라 직원들도 일하면서 과자를 향해 ‘감사합니다’라고 말합니다. 더욱이 하루 3000번 ‘감사합니다’를 말한 직원에게는 본봉과 별도의 상여금까지 지급하지요.”

다케다제과의 경영자이자 일본 제일의 투자가인 다케다 회장은 제품을 생산하는 사람의 행복도와 심리적 파동이 물건으로 이동한다고 확신했다. 실제로 사람들이 화내며 토해낸 숨을 봉지에 담은 다음 그 안에 모기를 넣어두면 몇 분 안에 죽는다. 반대로 기분이 좋아서 웃을 때 나오는 숨에서는 훨씬 오래 산다고 한다.

### 프로 세계의 R&D는 혁신과 소통이 중요해

손 회장이 다케다제과의 감사경영에 주목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그 자신이 삼성전관(나중





사진:인간개발연구원 DB

에 삼성SDI로 전환), 삼성종합기술원의 CEO로 활약하면서 칭찬경영과 감사경영을 도입해 성공 시킨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사실 회사 업무는 다른 사람의 협조가 있어야 돌아갈 수 있고 혼자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다. 하지만 대다수 직원들은 서로 도움을 주고받고도 “고맙다”는 표현 하나 제대로 하지 못했다.

“생산직 중심인 삼성전관에서는 홈페이지에 ‘칭찬 코너’를 만들어서 부서별로 올리도록 했습니다. 칭찬과 감사에 인색한 풍토와 습관 때문인지 처음에는 직원들이 호응하지 않았지만 2~3개월이 지나면서 현장 분위기가 서서히 바뀌더군요. 나중에는 한 달에 수천 건씩 칭찬과 감사가 오가면서 직원들 사이에서 지적 충돌과 시너지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생산직 직원들이 컴퓨터 앞에 오랫동안 앉아 있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주간 소식지를 발간하기도 했지요. 농심에 와서 주간 소식지 〈짜나는 뉴스〉를 발간해 생산과 영업 현장에 배포한 것도 사실 당시의 경험에서 힌트를 얻었던 것입니다.”

칭찬과 감사를 통해 소통이 원활해지고 제안이 활성화되면서 경영에는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 손 회장의 말을 직접 들어보자.

“예를 들어 생산 라인 한 곳에서 좋은 제안이 나와서 1억 원의 가치를 생산했다고 칩시다. 소통이 없었던 과거에는 그 효과가 그냥 한 곳에서만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소통의 인프라가 깔리고 22개 생산 라인 전체로 그 효과가 파급되자 22억 원의 가치가 창출될 수 있었지요. 나아가 칭찬과 감사를 통해 시너지 효과까지 발휘되자  $22 \times 22 = 484$ 억 원이라는 전혀 차원이 다른 결과가 나오기에 이르렀습니다. 실제로 당시 삼성전관의 매출이 1조 1천억 원을 기록했지요.”

삼성그룹은 1999년 손욱 삼성전관 사장을 이병철 창업자의 마지막 숨결이 남아있는 삼성종합기술원 사장으로 전진 배치했다. 연구원 중심인 기술원의 환경과 조건은 생산직 중심인 삼성전관과 달라도 너무 달랐다. 우선 1천여 명에 이르는 연구원 중 석사나 박사가 4백여 명이나 됐다. 연구실은 캐비닛과 칸막이로 철저히 분리돼 있었고,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어둡고 칙칙했다.

“과감하게 출입문을 유리문으로 바꾸고, 캐비닛과 칸막이도 없앴어요. 당연히 처음에는 연구가 안 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가며 심하게 반발했지요. 하지만 연구개발(R&D)에도 아마추어와 프로의 세계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뛰어난 과학자’를 찾아내서 지원하면 그만이고, 그들도 세상을 등진 채 연구실에만 파묻혀 지낼 수 있었지요. 그러나 이제 세상은 바뀌었습니다. 아무리 혁혁한 기술을 개발해도 타 부서의 협조를 받지 못하거나 타이밍을 맞추지 못해 사업화 기회를 상실하면 아무런 쓸모가 없지요.”

손욱 회장은 프로 세계의 R&D는 혁신과 소통을 통해서만 이뤄질 수 있다고 생각했다. 나아가 고객의 마음까지 읽어낼 수 있어야 한다고 연구원들에게 주지시켰다. 그가 사장으로 오기 전까지만 해도 기술원의 R&D사업 성공률은 18%에 불과했다. 기술혁신과 사업개발을 결합하는 제4세대 R&D체제로의 질적 전환은 불가피했다. 이를 위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프로세스 구축기법인 식스시그마, 연구원 1인마다 세계적 고수 10명과 네트워크를 맺는 G-PRO 10 프로젝트 등을 강력하게 실시했다.

“연구원과 회사원을 병사(soldier)에서 전사(warrior)로, 매니저(manager)에서 리더(leader)로 탈바꿈시킨다는 것이 당시 경영혁신의 목적이었습니다. ‘삼성기술원을 노벨상 수상자를 가장 많이 배출시킨 미국 AT&T의 벨연구소처럼 키우자고 호소해 연구원의 자긍심을 건드리는 한편, 칭찬과 감사를 통한 기술팀 간의 커뮤니케이션 강화에도 역점을 두었지요. 그러자 혁신의



물결이 기술원에 일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소통의 부재로 인하여 가동률이 떨어져 애물단지 취급을 받고 있던 슈퍼컴퓨터의 일처리 속도도 빨라졌음은 물론이고요. 그 결과 마침내 R&D사업 성공률은 61%로 급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 미국 케네디스쿨, 일본 마쓰시다정경숙 그리고...

그렇다면 칭찬과 감사를 통해 혁신을 모색하는 모델은 농심에서도 통했을까? 손욱 회장은 “사실 고문으로 컨설팅만 하다가 경영 일선에 나선 까닭도 삼성의 경험이 다른 기업에서도 통할지 확인해 보고 싶다는 도전의식이 발동됐기 때문이었다”고 했다. 경영진과 종업원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동참한 덕분에 백지 상태에서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농심의 혁신 작업은 삼성보다 더 빨리 끝났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손 회장은 야심찬 혁신 씨앗을 농심이라는 전답에 파종했다.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은 마음의 문을 열고 비전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와우미팅(전 직원이 모여서 와글와글 떠들면 아이디어가 우글우글 나온다), 3통1평(전 직원의 뜻, 말, 마음을 모아서 통하게 하고 평천하 즉, 글로벌 비전을 세운다) 등의 경영기법을 도입하거나 창조했습니다. 독서경영을 통한 역량의 개발, 제안제도를 통한 주인의식의 고취 등도 가미했지요. 여기에다 프라이드(Pride), 트러스트(Trust), 펀(Fun)이 흘러넘치게 하자 ‘세상에서 가장 신바람 나는 직장’ 즉, GWP(Great Work Place)를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됐습니다.”

손욱 회장은 독서경영을 통해서 프라이드를, 개선제도를 통해서 트러스트를 높일 수 있다

고 봤다. 그렇다면 나머지 하나인 펀은 무엇으로 높일 수 있을까? 손 회장은 그것이 바로 칭찬과 감사라고 했다. 그는 이를 통해 ‘책자’ 수준에 머물러 있던 전체 종업원을 ‘기관차’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었다. 실제로 2008년 11월 실시된 조직 몰입도 조사에서 농심은 종교적 수준(86%)에 가까운 82%라는 높은 지수가 나오는 진기한 기록을 세웠다.

손 회장에게 앞으로의 계획을 물었다. 손 회장은 “미국의 케네디스쿨, 일본의 마쓰시다정경숙 같이 그 나라의 근본적 혁신을 고민하는 싱크탱크가 한국에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 감사한 일이 생긴다고 믿기에 미래에 대해 크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집을 새로 짓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관리하는 사람이 있는데, 나는 관리나 안주보다 혁신과 변화에 강점을 보여 온 사람이기에 앞으로도 그런 일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미국의 케네디스쿨, 일본의 마쓰시다정경숙에 버금가는 연구기관이 한국에도 필요하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새마을운동 당시에도 정신문화연구원이 이론체계를 뒷받침하지 않았습니까? 21세기 미래 한국의 비전과 한국형 리더십을 고민하는 집단이 10~20년 동안 움직일 때 진정한 선진국에 도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거대한 움직임을 지원하는 서포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



#### ● 손욱 회장은 삼성 혁신 주도한 '한국의 잭 웰치'

‘한국의 잭 웰치, 혁신의 전도사, 최고의 테크노 CEO...’

국내 언론이 손욱 회장의 이름 앞에 붙이는 수식어들이다. 실제로 손 회장은 삼성을 혁신과 성장을 통해 초일류 기업으로 이끈 CEO 중 한 명으로 명성이 자자하다.

1945년 경남 밀양에서 출생한 손 회장은 서울대 기계공학과를 졸업하고 1975년 삼성전자에 입사했다. 삼성전기, 삼성전자, 삼성SDI의 프로세스 혁신과 전자적 정보시스템 구축을 주도해 성공적으로 정착시켰으며, 삼성SDI에 국내 최초로 식스시그마를 도입하여 디스플레이 사업의 일류화 기반을 다졌다.

손 회장은 1999년부터 5년 동안 삼성종합기술원 회장수 원장(사장을 맡아 국내 최초로 시장창출형 4세대 연구혁신과 R&D 부문의 식스시그마(DFSS)를 도입하여 기술경영 혁신모델을 만들었다. 2004년에는 삼성인력개발원 원장, 2005년에는 삼성SDI 상담역으로 재직하면서 우수 인재 양성에 열과 성을 쏟는 한편 자신의 경력과 철학을 후진에게 전수했다.

2006년부터 (주)농심의 고문을 맡아 컨설팅을 하다가 2008년부터 최근까지 2년 동안 회장으로 경영 일선을 지켰다. 현재 포스코 이사회 의장, 전주 발효식품엑스포 조직위원회 위원장 등으로 활발한 대외활동을 벌이고 있다. <변화의 중심에 서라>, <초일류 목표설정의 길>, <전통 속의 첨단공학기술>, <지식을 넘어 창조로 전진하라>, <심이지경영학> 등 다수의 저서가 있다.



(리더가 넘어선 위대한 종이 한 장)중에서.

거짓말을 거미줄처럼 내뿜지 마라!  
실용은 가는 실과 같아서  
한번 끊어지면 다시 잇기가 불가능하다.



거짓말은 결국 남을 감는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칭칭 감아 버린다.



# 행복은 운명이 아니고 선택이다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어떤 특별한 관계를 통해서 이 세상에 왔고, 계속 다양한 관계 속을 헤쳐 나가면서 삶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한 과정에서 유익하고 즐겁고 기쁜 만남이 있었는가 하면 바람직하지 않은 만남 때문에 아프고 슬플 때도 있었을 것이다.

어떤 사람은 개인 성장은 물론, 이웃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 관계 속에서 창의적인 일을 끊임없이 만들어 내면서 사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시도 때도 없이 이웃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이웃이 하고자하는 일을 방해하기도 한다. 한 사람이 위대한 업적을 남기거나 참혹한 해를 끼치는 행동을 하거나, 결국 그 근원적인 이유를 찾아들어가 보면 나름대로 각자가 자기 원하는 것을 성취하고자 한 인간 본성에서 출발한 것들이다.

## 긍정적 정서 경험, 인간관계 통해 얻어야

우리 인류는 수 천 년 전부터 공통된 바람 즉,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을 추구해왔다. 그런데 그것을 위해 살다보니 오히려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나라끼리 전쟁도 하고, 때로는 한 민족이나 국가가 멸하고 흥하기도 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같은데 왜 그렇게 간절히 바라는 것을 아직도 못 이루는 것일까? 무엇 때문에? 행복요인을 연구한 쏘니어 르보모스키에 의하면 행복은 환경적인 요인 10%, 유전적 요인 50%, 그리고 자기 통제력 40%에 의해 결정된다고 했다. 결국 60%의 요인을 40%의 개인 통제 능력으로 행복해질 수도 있고, 우리가 바라는 창의성을 발휘함으로써 많은 인간사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한 통제력의 발휘를 긍정심리학이나 선택이론에서는 '긍정적인 정서 경험'에서 가능해진다고 했다.

마틴 세그리먼은 30여 년간 우울증과 무력감을 연구한 세계적인 대학자이다. 그는 프로이트가 있었던 100년 전부터 우울증, 무력감과 같은 인간적 약점, 즉 인간의 부정적인 병리현상을 고쳐 보려 했지만 원하는 만큼 인간이 좋아지지도, 행복해지지도 않았다고 한다. 그래서 2000년대부터 10여 년간 인간의 긍정적인 강점 발견과 그 적용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과학적으로 연구·제시했다.

심리학의 세계적인 대가들은 과학적인 연구를 거듭하면서, 그 '긍정적인 정서' 경험의 반복은 '바람직한 인간관계'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가장 좋다고 했다. 그들의 과학적인 연구는 좋은 인간관계 유지의 중요성이 창의적인 교육이나 난이도 높은 문제해결 현장에서 뿐만 아니라 산업현장에서, 정치와 종교활동에서, 즉 치료이전에 예방과 재활 성장을 위한 제도에서 더욱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하게 한다.

## 긍정적 정서 경험 반복이 인간 성숙시켜

우리가 물질적인 풍요나 돈으로 얻을 수 있는 편안함, 편리함, 사회적으로 성취할 수 있는 명예나 높은 지위는 언제나 그 변동 가능성이 높다. 또 인간에게 엄청난 쾌감을 맛보게 하는 술, 마약, 도박 같은 것들도 수없이 많다.

그러나 물질적인 쾌감은 물질적 수단이 공급되지 않으면 끝없이 갈망하다 전디다 못해 결국 중독되어 깊은 불행의 늪으로 빠지게 된다. 그래서 바람직한 인간관계를 통해서 얻어지는 이쁨이나 기쁨만이 '인간성숙'이나 이웃을 위한 공동 발전으로 연결되는 것이다.



● 김인자 소장

미국 성메리대 생화학과를 졸업하고, 시카고 로올라대학 상담 및 생활지도 석사, 성메리대 명예인문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서강대 평생교육원장 및 학생생활상담소장을 거쳐 현재 명예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한국가족치료학회 회장, 한국좋은인간관계학회 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용문상담심리대학원대학교 총장, 대인(大仁)긍정심리교육재단 이사장, 한국상담학회 이사 등으로 활동 중이다. 「현실요법과 선택이론」, 「사람의 마음을 여는 열쇠8가지」 등의 저서가 있다.

위대한 업적을 남긴 노벨 수상자, 뛰어난 교육, 철학, 종교, 정치적 지도자, 발명가, 성공한 기업가들의 두드러진 공통요인 중 하나는 가까운 사람들이나 가족들로부터 지속적인 지지와 사랑과 같은 긍정적 정서 경험을 반복해서 보급 받았다는 것이다.

### 인간관계를 통한 행복 만들어야

칙센트 미하이는 창의성의 발로를 몰입 경험과 연결해서 설명하였고, 그러한 몰입 경험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인간관계 속에서 미세한 몰입부터 큰 몰입까지의 경험이 가능하다고 했다. 한편, 현대의 리더십 모형도 바뀌었다. 수직이나 상하의 관계보다는 믿어주는 따뜻한 소프트 리더십(Soft Leadership)으로, 보스(Boss)형이 아니라 리드(Lead)형으로 말이다.

다 관계의 문제이다. 모든 만남을 행복해지는 경험으로 이어지게 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기성취, 자기사랑과 소속, 자유와 즐거움의 욕구 충족을 할 수 있어야만 한다고 윌리엄 글레서는 말했다.

시간, 건강, 그리고 관계를 잃거나 나빠지면 그 회복이 보통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다. 원수를 외나무다리에서 만났을 때, 꼴 보기 싫은 사람을 피해 가거나 ‘그가 없어졌구나’하고 안심하는 순간 꼴 보기 싫은 사람은 바로 뒤에서 혹은 먼저 와서 “나 여기 있지”하고 나타난다. 그들을 피하는 것은 자기 삶이 끝나야만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맞닥뜨리게 되는 모든 문제나 문제를 제공하는 이들과 편안하게 더불어 잘 사는 방법을 자기 스스로 배우고 개발해야만 한다.

다행히 어떤 사람이나 문제를 어떻게 상호 성장의 계기로 만들지 연구한 방법들이 많이 있다. 또 하늘은 우리에게 언제나 소생, 성장할 수 있는 힘도 주셨다. 다만 배우고 연습하고 ‘결’심하고 ‘실’천하면 ‘결실’이 생기게 된다.

인간관계를 통한 행복은 투자한 만큼 복지 이자가 늘고, 당신이 조금만 바꾸면 이웃과 사회를 바꿀 수 있는 엄청난 ‘좋은 바이러스’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시작하면 쉽고 포기하면 어렵다. 다음의 행복 실천 현장을 쉬운 것부터 해보고 행복해지면 이웃에게 또 알려보자. 간디가 말했다. “주먹을 쥐고 있으면 악수를 할 수 없다.” **▶▶▶**

### <행복현장>

1. 좋은 음식을 필요한 만큼만 먹기: 결식, 과식 말 것
2. 아침에 거울보고 밝게 3번 웃기
3. 15분 이상 운동하기: 맨손체조·허리체조·걷기
4. 이웃에게 먼저 인사하기
5. 이웃이나 자신에게 선행하기: 좋은 글귀·생각·봉사
6. 하루에 15분 이상 긍정적으로 몰입 경험하기(책 읽기, 음악 듣기, 화초 가꾸기, 청소하기, TV 시청시간 줄이기)
7. 자연 새소리, 꽃향기를 감상하고 나누기
8. 감사한 마음을 직접 전하기, 기도하기
9. 잠들기 전에 그날 좋았던 일 3가지 이상 떠올리기: 긍정적 명상
10. 오늘보다 더 잘 할 수 있는 내일 계획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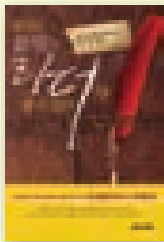


## 블루이코노미

군터 파울리 / 이은주, 최무길 역 / 가교 / 444쪽  
**지구와 경제가 함께 성장하는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의 해답!**

저탄소 녹색성장의 미래를 대비하는 혁신적  
 인 모델 블루이코노미를 다각적으로 조명한

전망들을 하나로 엮은 책이다. 이 책은 흔들리는 지구촌의 미래를  
 밝게 이끌어줄 경제모델인 블루이코노미를 통해 사회를 바꾸는  
 경제 시스템을 제시한다. 효율적으로 자원을 이용하면서도 경쟁  
 력 있는 경제를 실현할 수 있는 전망들을 살펴보고, 기술의 최전방  
 에서 활동하는 과학자들의 연구업적을 설명한다.



## 당신도 섬기는 리더가 될 수 있다

켄 제닝스, 존 슈탈 베르트 / 조천제 역 / 넥서  
 스BIZ / 216쪽

**자신을 낮추어 팀을 최고로 이끌어라!**

명령하지 않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섬기  
 는 리더의 다섯 가지 행동 원칙을 이야기 형

식으로 알기 쉽게 풀어낸 책이다. 주인공이 오랜 시간 동안 관계가  
 소원했던 아버지와 함께 생의 마지막 시간을 보내며 깨달아 가는,  
 섬기는 리더십 이론을 감동적인 이야기 형식으로 풀어낸다. 이를  
 통해 그동안 막연하게만 거론되었던 서번트 리더십, 섬기는 리더  
 십에 대해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제시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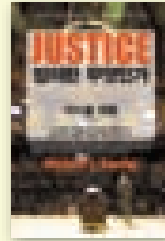
## 네 약함을 내세워라

마수취안 / 장연 역 / 김영사 / 448쪽

**약점으로 상대를 제압하는 전략서**

〈모락의 즐거움〉의 저자 마수취안이 고전에서  
 발굴한 또 하나의 전략서이다. 이 책은 감  
 추고 싶은 약점으로 상대를 소리 없이 제압하

는 역발상의 지략을 담고 있다. 흥미로운 '약자의 생존법'을 가려  
 뽑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약자가 약함을 내세워 승리할 수 있  
 는 흥미진진한 전술을 보여준다. 약함이 결코 숨겨야 할 부끄러운  
 것이 아니며, 약자라도 언제든지 강자의 자리에 올라설 수 있음을  
 증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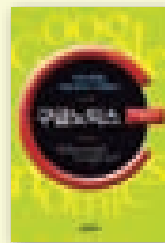


## 정의란 무엇인가

마이클 샌델 / 이창신 역 / 김영사 / 404쪽  
**세계적 석학, 마이클 샌델 교수의 생기 넘  
 치는 강의실로의 초대!**

정의론 분야의 세계적 학자이자, 공동체주의  
 이론의 대표적인 4대 이론가로 손꼽히는 샌

델 교수의 실제 하버드대 강의 'Justice(정의)'를 바탕으로 쓴 책이  
 다. 자유사회의 시민은 타인에게 어떤 의무를 지는가, 정부는 부자  
 에게 세금을 부과해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 하는가, 자유시장은 공  
 정한가, 진실을 말하는 것이 잘못된 때도 있는가, 도덕적으로 살인  
 을 해야 하는 때도 있는가 등 우리가 시민으로 살면서 부딪히는 어  
 려운 질문들을 설득력 있게 풀어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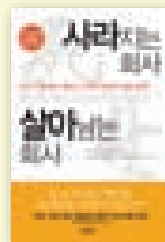
## 구글노믹스

제프 자비스 / 이진원 역 / 21세기북스 / 400쪽

**구글에게 배우는 현대 기업의 생존 법칙**

미국 비즈니스와 금융 역사상 최단기간에 급  
 성장한 구글. 어떻게 검색이 구글을 성공으로

이끈 핵심엔진이 될 수 있었을까? 언론인이  
 자 인터넷 칼럼니스트인 저자는 책에서 구글을 통해 현대기업이  
 알아야 할 필수적인 생존법칙과 성공전략을 들려준다. 이 책은 구  
 글의 성장에 대한 지난 기록이나 구글을 예찬하고 있지는 않다. 그  
 보다는 구글이 지금까지 이루어낸 성취들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교  
 훈들을 실생활에 적용하고 활용할 수 있게 도와준다.



## 사라지는 회사 살아남는 회사

고미야 가즈오시 / 김정환 역 / 21세기북스 /  
 226쪽

**장수기업에서 배우는 위기극복과 생존전  
 략 지침**

이 책은 사내 구성원들이 공감하고 공유하는  
 회사의 비전과 이념을 설득력 있게 제시한다. 특히 백년의 세월 동

안 번영을 지속하고 있는 회사들의 장점을 살펴, 선행한 기업 풍토  
 와 사풍이 어떻게 장수 기업들의 유지시켜 주고 있는지 살펴보면  
 서 장수하는 기업의 비법을 엿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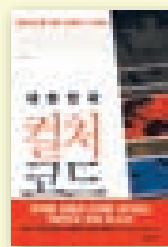
### 디자인 읽는 CEO

최경원 / 21세기북스 / 325쪽

CEO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디자인 안목'이다!

이 책은 우리 시대가 요구하는 '디자인'에 관한 이야기다. 특히 CEO를 대상으로 삼으면서

성공을 사로잡는 마지막 조건이 디자인임을 명확하게 드러낸다. 급변하는 우리 시대에서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 그것을 명품으로 살아남게 만들기 위해서는 CEO에게 '디자인 안목'이 있어야 함을 일깨워주고 있다. 아울러 CEO가 스스로 수석 디자이너가 되어 디자인에 대한 모든 것을 익혀나가도록 이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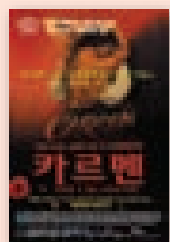
### 대한민국 컬처코드

주창윤 / 21세기북스 / 247쪽

게릴라와 놀이족이 만드는 대한민국 문화 2.0

이 책은 복잡하게 급변하는 대한민국 트렌드를 관통하는 문화코드의 핵심을 탁월한 통찰력으로 잡아내고 있다. 특히 생산적 주체로서의

대중을 '게릴라'와 '놀이족'으로 규정하면서 5가지 문화코드를 통해 대한민국 문화뿐 아니라, 사회, 정치, 사회, 경제의 지형을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특히 문화코드 속에 숨겨진 시대정신에 집중하고 있다. 개인, 기업, 국가가 대중의 문화적 관심 등을 파악하고 전망하여 자신의 이해와 필요에 맞게 활용해나가도록 구성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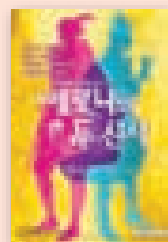


### 오페라 '카르멘'

베세토오페라단은 이번 공연을 위해 프라하의 가장 마에스트로 지리 미쿨라, 카르멘 전문 연출가 즈니크 트로스카, 프라하 스테티니 극장 디렉터 안무가 페트르 지르사, 카르멘 역 800회

이상의 프라하의 마리아칼라스 갈리아 이브라 기모바, 06하노버 오디션 심사위원 만장일치로 뽑힌 최승현 등 체코 프라하극장 주역들과 국내 최정상 성악가들을 초청했다. 베세토오페라단은 2010 카르멘을 통하여 동서양이 조화를 이루는 무대를 선보임으로써 한국 오페라 팬에게 카르멘의 진수를 선보일 계획이다.

- 일정 : 7월 3일(토)~7월 7일(수)까지
- 장소 :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
- 문의 : 베세토오페라단 02-3476-6224



### 음악극 '베로나의 두 신사'

이탈리아 베로나와 밀라노를 배경으로 두 친구 발렌타인과 프로투스스의 우정과 사랑을 그린 작품으로 셰익스피어가 가장 처음 세상에 내놓은 희곡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공연은

셰익스피어 전문 연출가인 영국의 여류 연출가인 글렌 월포드에 의해 지난 2007년 일본에서 공연된 음악극 버전으로 이번 한국 공연 또한 글렌 월포드가 내한하여 연출하여 셰익스피어의 나라, 영국의 정서가 스며든 깊이 있는 연출력을 보여줄 예정이다.

- 일정 : 7월 17일(토)~8월 28일(토)까지
- 장소 : 세종문화회관 M씨어터
- 문의 : 신시컴퍼니 02-577-19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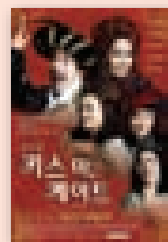


### 발레 '롤랑 프티의 밤'

현존하는 유일한 전설적 안무가 롤랑 프티의 무대를 최초로 국립발레단이 선사한다. 국립발레단이 무대에 올릴 롤랑 프티 '트리플빌'에서는 반 고흐의 한 작품을 보는 듯한 남불(南佛) 프로방스 풍경의 '아를르의 여인'의 무대, 장 콕

토의 대본과 그림 등을 엿볼 수 있음은 물론 국내에도 잘 알려진 '젊은이와 죽음', 비제의 오페라로도 유명한 뿐 아니라 매력적인 캐릭터들로 다양하게 안무됐던 '카르멘', 그중에서도 가장 고전적인 명작이자 가장 많은 인기를 끌었던 롤랑 프티의 '카르멘'을 볼 수 있다.

- 일정 : 7월 15일(목)~7월 18일(일)까지
- 장소 :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
- 문의 : 국립발레단 02-587-6181



### 뮤지컬 '키스 미, 케이트'

셰익스피어의 대표적 희극 '말괄량이 길들이기'를 뮤지컬로 재구성한 뮤지컬 '키스 미, 케이트'는 낙천주의와 휴머니즘, 유머와 위트가 가장 잘 묻어나는 브로드웨이 코미디 뮤지컬의 진수로 평가받는 작품이다. 데이빗 스완의

연출로 무대에 오르는 이번 공연은 한층 화려해진 캐스팅과 아름답고 고전적인 르네상스 초기의 의상과 현대와 과거를 넘나드는 무대, 콜 포터의 다채로운 음악이 어우러져 한여름 청량감 넘치는 웃음과 함께 꿈과 환상을 심어줄 작품이 될 것이다.

- 일정 : 7월 9일(금)~8월 14일(토)까지
- 장소 : 국립극장 해오름극장
- 문의 : 신시컴퍼니 02-577-19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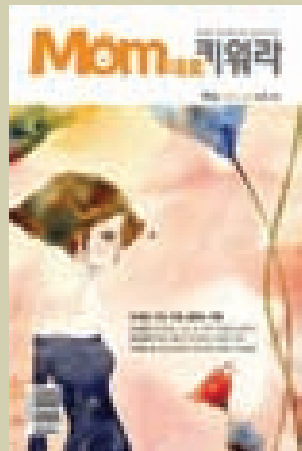
[ 회원소식 ]



■ **롯데호텔(대표이사 좌상봉)**은 특급호텔로는 유일하게 직원전용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다. 최근 7년 만에 새단장하여 다시 문을 연 '롯데호텔 어린이집'은 총 59평 규모로 보육실 3개와 상담실, 취사실, 자료실 등으로 구성, 약 35~40명의 어린이 보육이 가능하다. 호텔산업의 특성상 야간근무가 있는 직원을 배려해 오후 11시 30분까지 어린이집을 연장 운영하는가 하면, 어린이집 이용 및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출산 및 육아 휴가 사용을 권장하고, 남자직원도 육아 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다방면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좌상봉 대표는 "롯데호텔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당사 직원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육아에 대한 부담감 없이, 자녀를 마음 놓고 맡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부모가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JTE재능교육(대표이사 양병무)**

은 조선일보와 (주)조선에듀케이션이 공동 주최하는 '2010 대한민국의 교육기업대상'에서 교육기업대상을 수상하였다. 유아 학습지 부문에서는 '생각하는 쿠키북' 제품이, 초등 학습지 부문에서는 '셈이 빠른 수학' 제품이 각각 우수한 평가를 받아 수상을 하게 되었다. 한편 재능교육은 학부모를 대상으로 교육부터 리빙까지 다양하고 전문화된 정보를 제공하는 여성잡지 <맘(M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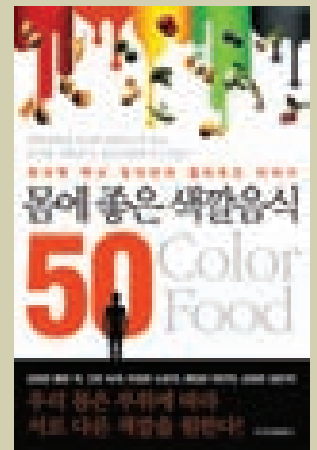
대로 키워라)를 창간하였다. 아이의 근원은 어머니이며 교육의 근원 또한 어머니에게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맘(Mom)대로 키워라>는 똑똑한 엄마들을 위한 감성매거진 콘셉트로 자녀교육과 관련한 종합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 **(주)한국종합건축사사무소(회장 전상백)**는 인천시가 일류 명품도시 건설을 위해 건설현장의 품질점검 및 평가를 위해 선정한 '2010년 우수건설 용역업자 및 우수 건설업자'에서 우수건설 용역업자 건축시설에서 인천 지하철 송도선 설계우수업체로 인정받아 지정 증서를 수여 받았다.

■ **구교근 한미음특허사무소 소장**은 지난해 8월 시인등단에 이어 지난 6월 17일 국제라이온스협회 354-B지구 성도라이온스클럽 회장으로 취임하였다.

■ **정이안 정이안한의원 원장**의 저서 <몸에 좋은 색깔음식 50> 개정판이 지난 6월초 출간되었다. 본 도서는 음양오행의 오방색과 오장육부가 서로 관련이 있으며, 오색(五色) 음식들이 건강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를 50가지 음식을 통해 한의학적으로 풀어낸 책이다. 2005년 봄 출간 이후 각종 매스컴을 통해 '컬러 푸드(color food) 건강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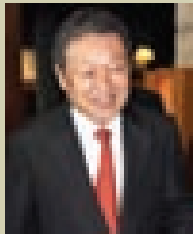


붐을 일으키며 대중의 많은 관심을 받아왔으며, 2009년 8월에는 중국에서 번역 출간되기도 했다. 개성판에서는 오방색을 골고루 사용하는 전통 한식 밥상의 우수함을 칼라 푸드(color food) 건강법과 연관지었으며, 콘텐츠를 부분 수정하고 사진을 모두 교체하여 출간하였다.

- **차문현 前 유리지산운용 대표이사**가 유리지산운용 주주총회를 통해 **유리지산운용 신임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차문현 신임 대표이사는 동화은행과 제일투자신탁을 거쳐 유리지산운용 상무를 역임했으며, 인덱스 펀드를 비롯한 자산운용 전 분야에 대한 높은 해안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차 대표는 기자간담회를 통해 “유리지산운용이 채권 ETF(상장지수펀드) 시장에서 최강자로 우뚝 설 것”이라며 취임 포부를 밝혔다.



- **어윤대 국가브랜드위원장**이 KB금융지주 신임 회장에 내정되었다. KB금융지주 회장 후보추천위원회는 “어윤대 회장 후보가 국가브랜드위원장 재임 시 보여준 뛰어난 추진력과 리더십으로 이미 경영능력이 검증되었다”며 “인터뷰에서도 실현가능성이 높은 경영비전을 제시하는 등 급변하는 금융환경을 선도적으로 헤쳐 나갈 책임자로 평가받았다”고 밝혔다. KB금융지주는 어 내정자를 7월 13일 로 예정된 주주총회에서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KB금융지주 회장은 주력 계열사인 국민은행장에 대한 인사권을 포함해 전권을 갖는다.



- **(주)세스코(회장 전순표)**는 지적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브릿지(bridge)’ 지원사업으로 한국지적장애인협회와 함께 방역지원 서비스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 **(주)에프앤디파트너(대표 유재용)**는 평소 주점 프랜차이즈 ‘와라와라’를 운영하면서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일에 앞장서고 있다. 유 대표를 중심으로 에프앤디파트너는 전 직원이 합심해 봉사 인근의 복지관을 통해 저소득층 주민을 돕는 아름다운 기부를 실천하고 있다. 더불어 사는 따뜻한 강남만들기에 기여하고 있는 에프앤디파트너는 그 공

로를 인정받아 최근 강남구청으로부터 ‘2009 아름다운 기부’ 감사패를 수여받았다. 에프앤디파트너는 지난 2009년부터 강남장애인복지관과 결연을 맺고 강남구 내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 기부활동을 함으로써 기업의 사회환원을 실천하고 있다.



- **티아이에스정보통신(공동대표 조석순, 변성호)**은 전기차 보급에 따라 할인마트, 대형병원,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전기차 급속충전기 설치 영업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회사의 주력제품은 운전자가 주차장에 설치된 LED전광판 표식을 따라가면 빈 주차공간이 나오는 자동주차유도시스템이지만 앞으로 주차유도시스템과 충전설비를 통합솔루션으로 묶어 전기차로 빌딩 주차장에 들어가면 재충전이 가능한 빈 주차공간으로 안내하고 출구에 주차비와 충전요금을 함께 징수하는 차세대 주차시스템을 보급하게 된다. 티아이에스의 주요 거래처인 홈플러스는 이미 영등포지점에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했으며 다음 달까지 월드컵, 동대문, 잠실, 목동지점에도 충전설비를 구축하기로 했다.

- **농협중앙회(회장 최원병)**가 제17회 CFP(국제공인재무설계사) 자격시험에서 57명의 합격자를 배출하여, 전 금융권 중 최고의 합격률을 기록하는 쾌거를 올렸다. 특히 합격자 상위권(1-5위)을 모두 석권하는 동시에 20위권 내에 14명의 합격자가 포함되는 등 놀라운 성적을 거뒀다. 이로써 농협은 총 344명의 CFP 자격자를 보유하게 돼 프라이빗뱅크(PB)사업의 핵심 경쟁력인 PB 전문인력 확보에 우위를 차지하게 되었다. 농협은 2010년을 ‘PB사업 도약의 해’로 선정해 기존 PB센터 5곳(강남, 분당, 강북, 부산, 대전)에 이어 추가로 4대 광역시에 PB센터 4곳을 개점, 더 많은 고객에게 PB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 **뉴월드영상에듀(회장 홍동의)**가 제5회 대한민국 외국어교육산업대상 어학학습기 부문 대상을 수상하였다. 회사 측은 지난 6월 24일, 코리아헤럴드가 주최하고 헤럴드경제, 주한미국대사관, 주한영국대사관, 주한호주대사관 등이 후원해 외국어교육관련 우수기관, 기업 및 제품을 선정해 시상하는 자리에서 영어학습기 ‘오토커’가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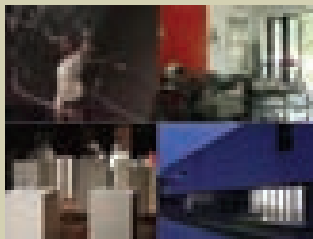
## [ 창립기념일 ]

■ 월간골프가이드	강민지 대표	7월 1일
■ (주)반포텍	최계순 사장	7월 1일
■ 세비양주식회사	류인식 대표이사	7월 1일
■ (주)티아이에스	유철진 회장	7월 1일
■ 眞德建設(株)	차영준 회장	7월 4일
■ (주)다비육중	윤희진 사장	7월 5일
■ 우드뱅크	전창윤 회장	7월 5일
■ (주)서울문화사	심상기 회장	7월 7일
■ (주)태창플랜트	송언기 회장	7월 7일
■ 한국경영자총협회	최만형 상무	7월 15일
■ KCTC	이윤수 대표이사 부회장	7월 20일
■ 일우선박(주)	서정권 회장	7월 27일
■ 기업은행	윤용로 은행장	8월 1일
■ 새한신용정보(주)	지광윤 회장	8월 1일
■ 섀넬러	우덕성 사장	8월 1일
■ 농업법인조인주식회사	한재권 사장	8월 2일
■ 영우통상(주)	양대길 회장	8월 14일
■ 농협중앙회	최원병 회장	8월 15일
■ Big Dream & Success	공한수 사장	8월 27일

## [ 소모임소식 ]

### ■ YCF(회장 정이안 / 총무 김진

욱)의 6월 모임은 동북아평화 연대와 한러친선협회가 공동 주최하고 본원이 후원한 한·



러 수교 20주년기념 자선음악회 'KORUS'를 후원하고 단체 관람하였습니다. 7월 모임은 이상길(조각가/국민대 교수) 회원의 작업실을 방문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길 조각가 외 몇 분의 조각가들과 함께 작품 감상과 조각이야기를 나누고 근처 송암전문대에서 별을 감상하는 시간도 마련하였으니 회원님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 일시 : 2010년 7월 13일(화) 오후 6시 30분
- 장소 : 장흥 이상길 조각가 작업실 (TEL. 017-251-9128)
- 일정 : 18:30 이상길 교수 작업실에서 모임

20:00 저녁식사

21:00 송암전문대 (천체망원경으로 별 감상)

- 문의 : 경영자교육팀 정성숙 과장 (TEL. 070-8670-8434)

■ **책글쓰기를 위한 에세이클럽(회장 김창송 / 총무 이계옥)**의 6월 모임은 지난 10일, 한·러 수교 20주년기념 자선음악회 'KORUS'를 단체 관람하는 감상충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연해주 고려인들의 자활을 돕기 위한 자선음악회라는 취지에 따라 에세이클럽과 김창송 성원교역 회장, 박춘봉 부원광학 회장께서 각각 후원금을 내주시어 더욱 뜻 깊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7월 모임은 아래와 같이 진행될 예정이오니 회원 여러분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 일시 : 2010년 7월 12일(월) 오후 6시 30분
- 장소 : 미정
- 문의 : 정용달 팀장 (TEL. 02-445-1949)

■ **다락회(회장 정태익 / 총무 이종원)**의 7월 정기모임을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 일시 : 7월 13일(화) 오후 6시 30분
- 장소 : 그랜드인터콘티넨탈호텔 1층 그랑카페
- 내용 : 정태익 회장의 국제 정세와 외교사 이야기
- 참석여부 : 총무 이종원 (H.P. 010-5306-8587)

■ **人經會(회장 이용국 / 총무 이종원)**는 6월 월례경기 후 정기총회를 통하여 이용국 신원헬트공업(주)회장께서 연임하여 회장직을 수행해주시고 명문 골프클럽으로 거듭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조직을 정비하였습니다.

- 부회장 - 박이락 성한트랜스텍(주) 대표이사  
장찬기 (복)해동재단 회장
- 총무 - 이종원 (주)리-사이트 대표이사

■ **화목회(회장 황석희 / 총무 홍승국)**의 7월 모임은 특별히 인간개발연구원 사무국 직원들을 초대하여 회원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 일시 : 7월 20일(화) 오후 6시 30분
- 장소 : 파인트리 (청담동 02-518-3999)
- 문의 : 정성숙 과장 (Tel.070-8670-8434)

- **인목회(회장 방기봉 / 총무 차진영)**는 지난 6월 모임을 갖고 한중덕 총무님에 이어 차진영 성부트레이딩(주) 대표께서 총무직을 새롭게 수행하시게 되었습니다. 오랜 기간 봉사해주신 한중덕 회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연구원 소식]

- **조순 전 경제부총리 겸 본원 명예회장은** 팔순기념 문집 <이 시대의 희망과 현실>을 출판하였습니다. 이 문집은 조순 전 부총리의 학문과 사상을 후학들에게 널리 알리고 전수하기 위해 미출간 논문들을 정리·편집한 것으로 네 권의 책과 부록으로 구성되었습니다.

### ■ 인간개발경영자연구회 하반기 참가비 인상

최근 3년간 롯데호텔의 식자재 인상에도 불구하고 조찬세미나 참가비(식사비)를 인상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는 하반기인 7월부터는 호텔측의 사정으로 식사비를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원은 정회원님의 참가비는 올해까지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하되, 예비회원의 참가비를 부득이 아래와 같이 인상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참가비 인상 시기 : 2010년 7월부터
- 정회원 참가비 : 기존 동일(35,000원)
- 예비회원 참가비 : 55,000원 → 65,000원

### ■ 본원, 2010 상하이엑스포 연수단 파견

지난 5월 1일 개막해 10월 31일까지 개최되는 2010 상하이엑스포의 인기가 날로 더해지고 있습니다. 하루 입장객이 주말이면 50만 명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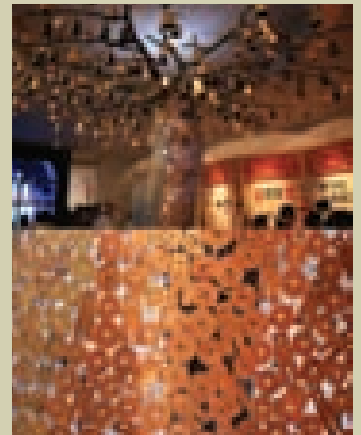


넘어서고 있는 가운데, 본원은 지난 6월 25일부터 2박 3일간, 조창현 전 중앙인사위원장, 김창송 성원교역 회장 등 회원 22명이 상하이엑스포를 참관하고 왔습니다.

방문단은 상하이 엑스포를 통해 세계시장의 흐름을 직접 눈으로 체험하고, 녹색산업, 미래도시 인프라, 청정에너지, 최첨단 기술 분야의 선진기업의 사례를 견학하는 의미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방문단은 엑스포의 주요 전시관인 중국관, 한국관, 일본관 및 주요 기업관을 방문하였으며, 입장 시 해당 국가관 및 기업관의 관장이 직접 나와 방문단을 환영해주었습니다. 이번 방문단은 외교통상부와 주 상하이 총영사관의 특별 예우로 엑스포를 더욱 가까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방문 국가관 중 가장 만족도가 높았던 곳은 단연 한국관이었습니다. 다른 국가관이 주로 자국 소개에 그쳤다면, 한국관은 소통과 융합을 주제로 한국문화의 다양성과 한·중 작가의 공동 설치작품인 '금란지교의 나무'를 통해 한국과 중국의 영원한 우정을



보여주었습니다. '금란지교의 나무'는 한·중 양국의 옛 동전으로 기둥을 삼고 종을 열매 삼았으며, 나무 옆으로 '한국인이 좋아하는 중국 소설은? 삼국지', '한국인이 제일 좋아하는 중국 배우는? 성룡', '한국인에게 영향을 준 중국 역사 인물 1위는? 공자' 등 한국이 중국을 얼마나 좋아하는지를 잘 보여주어 한·중 화합의 메시지를 전달하였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상하이엑스포 연수단에 참여해주신 회원들과 연수단의 전시관 관람에 편의를 제공해주신 주상하이 총영사관 관계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회원님의 경조사나 활동사항 또는 귀사의 주요행사, 신제품 출시, 기타 변경사항 등을 알려주시면 회원소식지 및 <좋은사람 좋은세상>에 게재하여 널리 홍보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소식 및 원고 : 정용달 팀장 dal2020@khdi.or.kr

홈페이지 : www.khdi.or.kr

전화 : 02-2203-3500 / 팩스 : 02-2203-1974

Better People Better World를 실천하며 각계 리더들의 평생학습의 장을 마련하고, 인적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있는 인간개발연구원의 회원이 되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난달 새롭게 회원으로 가입하신 분들을 소개합니다.

### ■ 양병무 JEI재능교육 대표이사 (법인회원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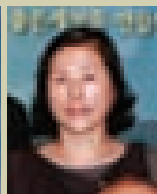
JEI재능교육은 1977년 창립 이래 인간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존재이기에, 올바른 교육환경만 주어진다면 누구나 스스로 창의적인 인재로 변화 될 수 있다는 믿음으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스스로학습시스템을 개발·개선하는데 매진해왔습니다. 주요사업은 학습지 제작, 판매 및 단행본 도서 판매 등으로 스스로학습 시스템과 평가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급속한 사회발전과 트렌드 변화 등으로 평생교육이 필수요소로 인식되고 있는 가운데 재능그룹은 대학, 학원, 방송, 인터넷, 출판, 인쇄, 유통 등으로 사업구조를 다각화하고 다양한 채널과 콘텐츠 및 학습시스템을 결합했습니다. 인간존중에 뿌리를 둔 재능교육철학과 고객에 대한 섬김의 자세를 실천함으로써 학습자가 진정으로 원하는 고품질 평생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은 학습지 제작, 판매 및 단행본 도서 판매 등으로 스스로학습 시스템과 평가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급속한 사회발전과 트렌드 변화 등으로 평생교육이 필수요소로 인식되고 있는 가운데 재능그룹은 대학, 학원, 방송, 인터넷, 출판, 인쇄, 유통 등으로 사업구조를 다각화하고 다양한 채널과 콘텐츠 및 학습시스템을 결합했습니다. 인간존중에 뿌리를 둔 재능교육철학과 고객에 대한 섬김의 자세를 실천함으로써 학습자가 진정으로 원하는 고품질 평생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전화 : 02-3670-0220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혜화동 55-5
- 홈페이지 : www.jei.com
- 참가임원 : 박성훈 재능교육 회장, 양병무 재능교육 대표이사, 박종우 재능아카데미 대표이사, 이현우 재능인쇄 대표이사

### ■ 신명호 (주)KCN유희 대표이사 (법인회원)

#### 김상미 (주)KCN유희 감사 (법인회원)



(주)KCN유희은 의류를 디자인, 제조하여 납품하는 전문 패션 프로모션 기업으로 대표적인 납품 브랜드는 세정의 엔섬, 형지어패럴의 크로커다일 등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50~60

여 기업에 주로 여성의류를 디자인·제조하여 납품하고 있습니다.

- 전화 : 02-552-4981
- 팩스 : 02-553-4983
- 주소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24-42 덕산빌딩 3층

### ■ 김봉곤 한민족예절학교 훈장 (개인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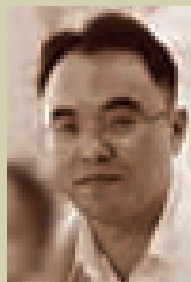


지리산 청학동 출신의 몽양 김봉곤 훈장은 우리의 전통문화를 아끼고 소중하게 생각하여 어려서부터 서당에서 20여년 동안 배운 한학과 서울에서 10여년 동안 KBS, MBC, SBS 등의 방송활동을 통해 체득한 경험을 토대로 과거와 현대를 아우르는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

어 청학동을 “인성, 예절, 한문교육”의 메카로 자리 잡게 하였습니다. 89년부터 서울 양재동, 분당 등지에서 땀겨머리 총각훈장을 하였으며, 2005년 12월부터 화천에서 학동들을 교육, 2008년 3월 강원도 철원군에 현재의 ‘한민족예절학교’를 열었습니다. 김봉곤 훈장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우리 민족의 전통과 예절, 한문교육 등을 통한 전인교육의 장을 열어주는 활발한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 전화 : 033-458-1234
- 팩스 : 033-458-8238
- 주소 : 강원도 철원군 근남면 잠곡2리 1번 (2번지)
- 홈페이지 : www.ichunghak.com

### ■ 허윤석 메릴린치증권 부장 (개인회원)



허윤석 부장은 메릴린치증권에서 Global Wealth manager로서 원화와 달러, 엔화 등 모든 통화에 투자하는 일을 하고 있으며, 전 세계 채권, 주식, 펀드 투자를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 전화 : 02-759-9233
- 팩스 : 02-3707-0578
- 주소 : 서울시 중구 태평로2가 84번지 서울파이낸스빌딩 29층
- 추천 : 김재용 (주)백천회장



# 2010 CEO 미디어 스피치 과정

“*이날서기는 CEO에게는 무언가 특별한 스피치가 있다*”

우리는 현재 다매체 다채널 미디어 시대, 공적으로든 사적으로든 말이 어떤 미디어를 통해서 바로 중계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의 파급력으로 인해 공인으로 활동하는 경영인들은 방송에 생중계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 ‘공식적인 말하기(media speech)’를 필요로 합니다. CEO의 이미지가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시대. 성공신화를 만들고 있는 CEO들의 한 마디, 움직임 하나 하나가 사람들의 관심을 일으키고 기업의 생사를 좌우하기도 하니, 이제는 CEO들 스스로 자신의 이미지를 만들고 관리할 때가 아닐까 합니다.

이에 본원은 국내 최고의 아나운서교육기관인 ‘봄온커뮤니케이션’과의 제휴를 통해 미디어 활동을 통한 기업이미지 향상과 최고지도자들의 성공적인 미디어활동을 돕기 위해 ‘2010 CEO 미디어 스피치 과정’을 기획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무한경쟁시대에 개인과 기업의 브랜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막강한 경쟁력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 다매체 다채널 미디어시대 CEO의 통합 이미지 전략과 맞춤 스피치교육

공중파 전원합격 신화, 아나운서 교육계의 마이더스의 손  
봄온 성연미 대표와 전현직 아나운서들의 직강

- **일시:** 2010년 9월 7일 - 10월 12일, 매주 화요일 오후 3시~6시
- **장소:** 봄온커뮤니케이션 (서울시 마포구 노고산동 적암빌딩 6층)
- **주최:** 인간개발연구원, 봄온커뮤니케이션
- **대상:** 15명 (CEO, 임원, 전문직업인, 강사)
- **교육비:** 인간개발연구원 회원 120만 원 / 비회원 150만 원 (부가세 면세)
- **문의:** 경영자 교육팀 민선아 과장 (Tel. 02-445-1948)
- **특징:** - 최고 리더를 위한 1:1 맞춤 스피치 교육, 개인별 연습을 위한 AV시스템룸 제공  
- 시각언어, 음성언어, 미디어언어를 통합한 멀티스피치의 완성  
- 최고 지도자의 전략적 스피치 구현 : 회사소개 동영상 제작, 영상 메시지 제작, 방송인터뷰 실습

회차	일시	주제	내용
01	9/7(화)	최고위를 위한 미디어 스피치 전략	- CEO의 브랜드이미지를 위한 전략스피치 - 미디어 스피치의 요소 - 발성, 발음, 음성표현법
02	9/14(화)	목소리로 경영하라 - 효과적인 음성언어교육	- CEO 고품격언어, 아나운서를 벤치마킹하라 - 자기소개, 직원 메시지, 가족 메시지 중 선택 - 상황별 말하기 실습
03	9/28(화)	이미지로 승부하라 - 호감 가는 시각이미지 교육	- CEO는 회사의 스타, 이미지를 높여라 - 장점을 살리며 호감 가는 이미지 만들기
04	10/5(화)	미디어언어로 품격을 높여라 - 인터뷰를 통한 대화체 실습	- 반드시 성공하는 미디어 인터뷰 - 개별 인터뷰 녹화와 모니터 진단
05	10/12(화)	모두 성공하는 WIN WIN SPEECH 모두가 꿈꾸는 DREAM SPEECH	- 회사와 가정 그리고 친구, 모두에게 사랑받는 스피치를 구사하라 - To be continue

### ■ Main Speaker



**성연미**  
봄온커뮤니케이션 대표  
(전 KBS 아나운서, 현  
송실대 겸임교수)



**김상준**  
동아방송대 교수  
(전 KBS 아나운서실장)  
봄온 출신

### ■ Guest Speaker



**이지애**  
KBS 아나운서  
봄온 출신



**한준호**  
MBC 아나운서  
봄온 출신



**최기환**  
SBS 아나운서  
봄온 출신



**권선영**  
크레 메이크업 원장  
(아나운서, 방송인 전문  
메이크업)

\* 방송일정으로 강사진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인간개발연구원, 6.2 지방선거 기간 중에도 평생학습의 장 이어가 2010년 5~6월, 전국적으로 120회 강연 열려

### 〈교육컨설팅소식〉

#### ■ 지방자치아카데미, 5~6월 95회 강연



다양한 주제로 각 분야 인사들의 특강을 들을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의 평생교육프로그램인 지방자치아카데미가 6.2 전국지방선거 기간에도 쉬지 않고 진행되었다. 5-6월에는 전년 평균대비 다소 감소한 95회의 강연이 전국적으로 열렸다. 주요 강연으로는 아산시청의 류태영 건국대 명예교수를 비롯해, 전주시청에 초청한 정부혁신연구소장, 대전 서구청에 이왕재 서울대 의대 교수가 연단에 올라 특강을 진행했으며, 용인 시청에서는 전직원을 대상으로 송영대 평화문제연구소 상임고문을 모시고 안보문제와 관련한 월례특강을 진행하였다.

#### ■ 목포·진도 공공도서관과 함께 진행한 특별강연회



목포공공도서관과 진도공공도서관은 지난 6월 8일 오후 본원과 함께 진도중학교 강당에서 재학생과 교직원, 학부모 등 3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우주인 고산 박사를 초청해 특별강연회를 개최했다. 2006년 한국인 최초 우주비행사 최종 후보였던 고산 박사는 “꿈은 깨질 수 있지만, 잊지 않고 도전하면 반드시 이룰 수 있다”며 청소년들에게 미래에 대한 강한 희망과 도전의식을 심어 주었다. 한편 목포공공도서관은 올해 상반기부터 목포 외에도 진도, 영광 공공도서관 등과 함께 본원의 협조를 얻어 청소년들과 학부모들이 함께 참여하는 특별 강연회를 개최해왔다.

#### ■ 기업·공공기관에서 17회 교육



기업 정기교육부문에서는 리바트에서 이성호 연세대 교수와 황을문 서린바이오사이언스 사장이 임직원 특강에 나섰다. 대웅제약 경남지역본부는 하일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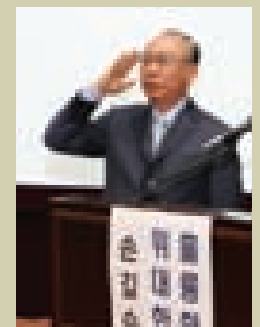
KBS야구해설위원을 모시고 의식개혁 특강을, YPP디지털은 김영성 신홍대학 교수를 모시고 건강강좌를 개최하였다.

공공기관 정기교육에서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와 함께 하는 ‘서귀포시JDC글로벌아카데미’가 5월 11일, 두상달 김영숙 가정문화원 이사장 부부강사를 모시고 가정의 달 부부특강을, ‘제주시JDC글로벌아카데미’는 김윤종 SYK글로벌 회장을 모시고 시민특강을 진행하였다. 우정사업본부에서는 서유현 서울대 의대 교수를 모시고 치매예방에 관한 건강강좌를 진행하였다.

워크샵 진행은 6월 10~11일까지 호텔현대 경포대에서 강원도 지자체와 기상청 담당 공무원 150여 명을 대상으로 제2회 기후변화대응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샵을 총괄 기획 진행하였다. 이밖에도 경북어린이집 원장을 위한 워크샵과 JDC정보보안워크샵을 진행하였다. 이로써 기업 및 공공기관은 지난 5-6월간 총 17회의 교육컨설팅을 진행하였다.

#### ■ 병영선진화를 위한 아카데미 8회 개최

육·공군본부 및 예하 군부대 장교들을 대상으로 하는 인간개발연구원 군부대 특강이 천안함사태로 안보의식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5-6월 동안 총 8회가 진행되었다. 총 1800여 명의 군 장교 및 관계자들이 참석한 군부대 특강에는 손길승 SKT 명예회장, 김승기 극동방



송 사장을 비롯하여 백승주 KIDA 안전전략연구센터장, 최성애 HD가족클리닉 원장 등 정재계 다양한 인사들이 연사로 참석했다. 한편 특강에 참석한 연사들은 천안함 사태와 관련해 사고 징벌과 유족들에 대한

깊은 애도와 위로의 뜻을 전하며, 육·해·공 3군이 지금까지처럼 강한 안보정신과 대북 안보태세를 갖춰줄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 〈교육컨설팅기관소식〉

### ■ JDC, 사랑나눔 카드로 '내 고장 사랑운동' 전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사장 변정일, JDC)는 지난 6월 11일 국민은행 등과 협약을 맺고 'JDC 사랑나눔' 카드를 통해 '내 고장 사랑운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JDC 사랑나눔 카드를 이용하면 다양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국민은행은 특별지원금과 함께 카드 사용액의 0.2%를 기금으로 적립시켜 준다. JDC는 이 기금을 활용해 제주지역의 소년소녀가장 등 어려운 이웃을 후원하게 된다.

### ■ 우정사업본부, 출범 10주년 고객이벤트 개최

우체국금융이 우정사업본부 출범 10주년을 맞아 고객 이벤트를 펼친다. 7월 14일까지 우체국인터넷뱅킹(www.epostbank.kr)에 접속해 퀴즈 이벤트에 응모하거나 우편엽서로 퀴즈 정답을 우정사업본부 금융총괄팀(110-110 서울시 종로구 종로6)으로 보내면 730명을 추첨해 1만~10만 원 상당의 우체국쇼핑 상품을 경품으로 지급한다. 당첨자 명단은 7월 30일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www.koreapost.kr)나 우체국인터넷뱅킹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우체국예금 고객 중 고객정보를 수정하면 500명을 추첨해 순금, 국내산 쌀을 경품으로 지급한다. 7월 30일까지 우체국창구, 우체국인터넷뱅킹, 우체국금융콜센터(1588-1900)에서 고객정보를 수정하면 자동으로 응모가 된다. 당첨자는 8월 3일 발표한다.

### ■ 강원도, 녹색성장 조례안 만든다

강원도는 '강원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인)'를 마련해 지난 6월 11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조례안은 에너지 절약, 녹색기술·녹색산업 발전, 녹색생활 및 지속가능한 발전 등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은 또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된 시책과 계획은 강원도 녹색성장 추진계획을 중심으로 체계화하고, 강원도 녹색성장위원회와 3개 분과위원회의 구성, 녹색성장책임관을 지정해 운영하는 등 추진체계도 명시했다.

### ■ 행정안전부, 자전거 거점도시 10곳 만든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6월 10일 강원 강릉시, 경북 구미시, 전북 군산시, 제주 서귀포시, 전남 순천시, 충남 아산시, 경기 안산시, 경남 진주 창원

시, 충북 증평군을 10대 자전거 거점도시로 선정했다. 이들 도시는 향후 3년간 한 도시당 100억 원씩 총 1000억 원을 집중 투자해 자전거인프라는 물론 안전문화까지 자전거 이용에 불편함이 없는 명품 도시로 육성된다. 거점도시 선정은 인구·지형 등 지역특성, 추진역량, 발전가능성 등 세부 심사를 거쳐 자전거 이용자가 많아 짧은 시간에 중심도시로 조성될 수 있는 곳을 선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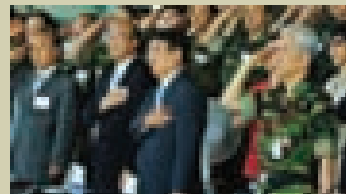
### ■ 통합 창원시, 행정기구 균형발전계획 수립

6.2 지방선거에서 초대 통합 창원시장으로 당선된 박완수 창원시장과 실무진은 최근 3개시의 균형발전을 강조한 행정기구 개편안을 마련했다. 부시장이 3급으로 격상되는 기획실과 균형발전실을 전면에 배치한 본청 기구의 경우 행정국, 경제국, 환경국, 문화체육국, 주민생활국, 도시교통국, 건설국 등 2실 7국 형태다. 다음달 출범하는 통합 창원시의 행정기구는 기존 창원·마산·진해 3개시의 균형발전에 초점을 맞춰 짜여진다. 통합시 출범준비단과 실무지원단에 따르면 창원·마산·진해 3개시의 18국 86과 365담당이 7월부터 9국 43과 178담당의 통합 창원시 행정기구로 개편된다.



### ■ 서울 영등포구, 시세·세외수입 징수 우수구 선정

서울 영등포구가 안정적인 세입확보를 위해 체계적인 세원관리, 숨은 세원발굴, 강력한 체납징수활동에 애쓴 노고를 인정받았다. 영등포구는 최근 서울시가 실시한 '2009년 회계연도 시세 및 세외수입 징수실적 종합평가'에서 우수구로 선정, 3억 원의 인센티브 사업비를 받았다. 이번 평가는 서울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비교 평가한 것으로, 구는 그동안 세입증대에 온 힘을 기울였다.



### ■ 통일전망대, 육군토론회

지난 6월 8일 오후 육군본부가 주최한 '2010 육군토론회'가 파주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 "항재전장(恒在戰場), 국가방위의 중심군 육군"이란 주제로 열렸다. 지난 2000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는 육군토론회에는 이상우 국방선진화추진위원장, 김신복 서울대 부총장, 김판규 육군협회 부회장을 비롯해 사계전문가, 대학생, 군사마니아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육군의 정책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 강원도 녹색성장, 준비 완료!

## 제2회 기후변화대응 역량강화를 위한 도·지자체·기상청 담당공무원 워크숍

최근 강원도에서 불어오는 녹색바람이 거세다. 대한민국 산림수도 강원도가 국가전략시행 계획인 '녹색성장 5개년 계획'에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강원도는 6월 초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강원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조례안에는 도 녹색성장위원회와 3개 분과위원회 구성, 녹색성장 책임지정관 운영 등으로 도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또한 에너지 절약, 녹색산업 발전, 녹색생활 등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향후 녹색 사업에 제도적 문제가 최소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 강원도, 실무자 녹색역량 강화 교육에 적극 나서

강원도는 실무자의 녹색 역량 강화에도 적극적이다. 지난 6월 10일~11일까지 강원도는 재단법인 한국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와 한국인간개발연구원이 참여한 가운데 도내 실무 담당자의 기후변화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현대호텔 경포에서 개최했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된 '기후변화대응 역량강화를 위한 담당공무원 워크숍'에는 도내의 각 시·군별 기후변화 담당자 및 관련 부서 담당자, 강원 기상청 기후변화업무 담당자 등 170여 명이 참석하여 도의 뜨거운 녹색 열기를 그대로 반영했다.

이번 행사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의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절약, 녹색생활 실천 등 차별적이고 특성화된 프로그램으로 도 내의 녹색성장 실무 인프라 구축에 큰 밑거름이 됐다는 평가다.

한편, 이번 교육에는 각 시·군의 기후변화 담당자와 기상청 담당자 외에도 지자체의 기후, 에너지, 환경, 산림, 녹색성장, 축산, 농림, 보건, 수산, 청사관리 등 각 지역적 특성에 맞는 10개 부서 담당자도 함께 참여했다.

특히 각 지역 담당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공통된 주제로 토론과 강의를 동시에 진행하며, 녹색성장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도출하는 자리가 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는 더욱 크다. 또한 기후변화 대응 인프라 형성, 공통 역량 강화 외에도 지역간 상호 보완적 모델 형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 중간 중간 각 담당자들은 지역에 맞는 성공 가능 모델 수렴에 여념이 없는 모습이었다.

### 녹색성장 인프라 구축에 도움

이번 워크숍 교육의 강사진을 살펴보면, 첫날 환경부 기후변화협력과 남선광 사무관의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시행에 따른 환경부의 역할과 지자체 기후변화대응 협력방향", 환경과 경영 양인목 대표의 "녹색성장시대의 리더십", 서울신문 이도운 정치부장의 "그린비즈니스의 세계", 에너지관리공단 온실가스등록실 김창구 실장의 "온실가스·에너지목표제 추진계획 및 과제",



참석한 공무원들이 강연을 경청하고 있다.



6월11~12일, 강원도와 한국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인간개발연구원이 함께 '기후변화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1 서울신문 이도운 정치부장은 강원도의 그린마케팅, 탄소비즈니스, 글로벌 기후변화시장의 성공 전략에 대해 강연했다. 2 윤석모 원장이 마지막 순서로 현대인의 건강관리에 관해 강연하고 있다. 3 김창구 에너지관리공단 실장이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추진 계획에 대해 열린 강연을 하고 있다.

강원기상청 이정석 기후과장의 “녹색성장지원을 위한 기후감시 및 예측” 등이 진행됐다. 또한 2011년 정부 합동평가 지표설명 및 공공청사 에너지절감 우수사례 발표로 강원도 원주시청과 강릉시청 등의 사례 발표도 함께 진행됐다.

둘째날 발표로는 한국표준협회 이창준 팀장의 “지자체와 함께 하는 기후변화관련 주요사업”과 녹색연합 이유진 전문위원의 “녹색성장시대의 그린스타트의 역할”, 지식경제부 기후변화정책과 박현중 사무관의 “녹색성장을 위한 에너지·산업정책”, 메디푸드클리닉센터 윤석모 원장의 “현대사회 직장인의 건강관리”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녹색성장시대의 그린스타트의 역할”을 발표한 녹색연합 이유진 전문위원은 발표를 통해 “강원도는 기후변화에 발맞춰 주민참여를 바탕으로 한 저탄소 녹색마을을 조성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매스 에너지화 시설을 마을에 설치해 에너지 자립형 지역공동체를 만들고 주민들이 값싼 에너지를 얻고 지역일자리를 창출하는 에너지자립마을인 오스트리아 도시 무레크를 우리나라에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도는 향후 지역적 특성화 모델 설정과 저탄소 녹색성장 체제전환 등에 맞춰 담당 공무원들의 역량 강화를 극대화할 수 있는 지속적인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이다. **▶▶▶**

6월11~12일, 강원도와 한국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인개발연구원이 함께 '기후변화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 포기하지 않으면 불가능은 없다! -ABCD성공법

2005년 4월 개강 이후 매월 정기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복사골아카데미'는 본원과 부천시가 정보화·세계화·지방화시대를 맞아 새로운 지식과 정보, 폭넓은 교양을 쌓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복사골아카데미는 회를 거듭할수록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열린 교육의 장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번 명사초청특강에서는 지난 6월 10일 "포기하지 않으면 불가능은 없다!-ABCD성공법"을 주제로 144회 강연을 해주신 고승덕 의원의 강연을 소개하는 지면을 마련하였습니다.



### ● 고승덕 의원

1957년 생으로 서울대 법대 학사와 석사를 마친 후 미국 하버드대 및 예일대에서 법학 석사, 컬럼비아대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서울대 재학 중 사법고시 최연소 합격, 외무고시 차석 합격, 행정고시 수석 합격이라는 대기록을 세웠다. 미국 4개주 변호사로 활동했으며, 세계 최대 로펌 Baker&Mckenzie에서 근무한 바 있다. 로드법률사무소 대표를 거쳐 현재 제18대 국회의원으로 의정활동 중이다.

### 성공으로 가는 열쇠, 노력

인생은 나무를 심는 것과 같다. 씨를 심고 물을 줘도 바로 자라지는 않는다. 그러나 10년쯤 지나보면 한 그루의 나무가 되어 있다. 이것이 바로 노력과 인생이 아닐까 한다. 빌 게이츠는 "세상은 너의 꿈과 희망을 듣고 싶어 하지 않는다. 세상은 오직 네가 보여주기만을 기다릴 뿐이다"라고 말했다. 성공이란 세상에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 성공을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노력이 요구된다.

내가 대학에 입학했던 76년경에는 사법고시의 지원자가 16,000명에 육박했고 합격자는 1년에 40명이었다. 그 사실을 알고 고시를 포기했었으나 1학년 겨울부터 다시 공부를 시작했다. 16,000여명의 도전자들은 모두 비슷한 능력을 지니고 있고 비슷한 교재로 공부를 한다.

당시 내가 판단하기로 경쟁우위에 서려면 더욱 많은 시간을 공부에 투자해야한다고 생각했다. 똑같이 주어진 24시간에서 보다 많은 시간을 공부에 투자하기 위해 나는 대학교 3학년부턴 고시에 합격하기까지 두문불출하며 작은 시간마저 놓치지 않고자 했다. 어머니께 젓가락질을 할 필요가 없는 비빔밥을 부탁드려서 밥알을 씹으며 책을 봤다. 결국 나는 고시에 합격했고, 3개의 고시를 모두 합격했다. 훗날 후자는 나를 일컬어 '고시계의 그랜드슬램을 달성했다'고 표현하기도 했다.

### '무엇'이 아닌 '어떻게'

성공과 실패는 그 사람의 머리, 부모님의 재산 등과는 일질 상관이다. 사업가는 성공할 수도 있지만 실패의 리스크가 너무나 크다. 그 중 성공한 사업가들의 경우를 보면 그들의 학력이나 물려받은 재산은 성공과 아무런 상관도 없었다.

지인 중에 최근 5년 사이 200억 이상을 번 사람이 있다. 그의 경우 네 번의 실패를 했다. 젊은 시절 꾸준히 모은 돈으로 일식집을 열었으나 비브리오 패혈증으로 실패했고, 이후 재기했으나 IMF가 찾아왔으며, 치킨가게를 시작했더니 조류독감이 도는 등 언제나 실패가 따라다니는 듯 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를 지켜보던 누군가가 3천만원을 지원했고 비장한 마음으로 다시 시작한 그는 이른바 '성공'을 했다.

그를 보면서 불현듯 떠오른 생각이 있었다. '무엇'이라는 것은 인생에서 중요하지 않다. 운이 좋아 얻은 아이템이 있다면 성공한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으



나 장기적으로 사람을 성공으로 이끄는 것은 '어떻게'이다. 내가 지켜본 사람들은 매번 실패해도 다시 일어섰고 그들을 재기로 이끈 것은 바로 '어떻게'였다. 나는 사람을 볼 때 살아가는 모습을 중요시 한다. 사람을 풀빵기계에 비교해보자. 풀빵은 기계의 모양에 따라 결정된다. 기계는 쉽게 바꿀 수 없고 결과물은 자기가 선택한 기계에 따라 정해지게 되어있다.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은 '어떻게'가 결정한다. 즉,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미래를 결정한다고 본다.

### 노력하는 사람, 노력하지 않는 사람

사람은 두 가지 형태가 있다. 나의 경우 치열하게 노력하는 스타일이다. 고등학생 초기에는 그저 중간만 가면 된다고 생각했다. 그러다 2학년 첫 수험시험에서 낙제를 받았다. 그 점수는 나에게 큰 충격이었다. 집을 팔고 땅을 팔아 날 서울로 보내신 부모님이 떠올랐다. 그러나 아버지께서는 그런 나에게 일어서 스스로 해결하라고 하셨다. 그때부터 치열하게 공부하기 시작했다. 6개월 후 성적이 조금씩 오르기 시작해서 전교 1등으로 졸업하고 서울대 법대에 들어갔으며 고시에도 합격했다. 나는 처음 하는 일이 두렵지 않다. 꾸준히 노력하면 언젠가 터널을 통과하게 되고 정점에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보통 많은 사람들은 왜 열심히 해야 하는지 모른다. 열심히 해야 하는 이유를 아는 사람만이 성공할 수 있다. 많은 사회인들, 학생들이 열심히 하지 않는 이유는 노력해도 당장 이익이 생기지 않기 때문이다. 노력을 하고 안 하고의 갈림길을 결정하는 것은 목표설정 문제다. 정년퇴임 후 퇴직금으로 식당을 열었을 경우 목표를 그저 식구들 먹여 살리는 정도로 잡는다면 실패하기 십상이다. 그 식당은 근근이 식구들 먹여 살리는 정도밖에 되지 않을 확률이 크다. 목표가 식구들을 먹여 살리는 정도이기 때문이다. 성공하는 이들은 다르다. 그들의 목표는 '최고'이기에 이미 성공한 곳을 끊임없이 찾아 탐구하며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고 변화를 이끌어간다. 서초구 교보생명사거리 부근에 유명한 복집이 있다. 보통 비싼 음식점은 경기를 탄다. 그러나 이곳은 언제나 손님으로 붐빈다. 그 복집 주인에게 성공비법을 물었다. 그가 말하길 자신은 45살까지 가정주부였고 남편으로부터 경제적 독립을 위해 창업을 했다고 한다. 창업의 리스크가 너무나 큰 것을 알았으나 그 리스크를 극복하기 위해 성공한 복집들을 계속 찾아다니며 공부했다고 한다. 주방부터 테이블까지 살살이 훑었다. 심지어 수저 배치하는 것도 연구해 손님의 입장에서 선호할 형태를 고민했다고 한다. 현재 성공적인 영업을 하고 있지만 아직도 두 달에 한 번씩

다른 유명한 복집을 방문하여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다고 한다.

### 성공을 위한 필요조건1 '꿈'

성공을 위한 노력은 '열심히'가 아니라 성공한 사람 이상으로 하는 것을 의미한다. 많은 사람들이 대충대충 살아가는 이유는 꿈과 목표가 없기 때문이다. 10년 후 어떤 모습으로 살지를 생각한다면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질 것이다.

꿈이 없는 사람은 노력을 할 수 없다. 결과가 달라지는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다. 노력을 적게 하는 사람은 목표가 낮다. 누군가가 열심히 하면 대충대충 하고 권하기도 한다. 뻔한 결과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은 노력을 적게 하는 것이 이익이라고 생각한다. 똑같은 물건을 만든다면 원가를 적게 들이는 기업이 성공하는 것처럼 내 인생의 목표를 위해 적은 양의 노력을 하는 것이 옳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성공할 수 없다. 높은 목표를 가진 사람은 더욱 많은 노력을 한다. 목표와 노력은 비례관계에 있다. 성공은 높은 목표, 그 목표를 위한 수많은 노력에서 나온다.

### 성공을 위한 필요조건2 '변화'

주위에는 착하고 성실한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그들이 꼭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고시공부를 할 때도 착하고 성실한 사람들이 그만큼

게 합격하는 것을 봐왔다. 착하고 성실한 것은 성공의 필수조건이 아니다. 주관적 성공은 자기만족일수도 있고 객관적 성공은 지금보다 나아지고 주위사람보다 나은 사람이 되는 것, 부모님보다 더욱 잘 되는 것 등이 있을 것이다. 그 '나아진 것'을 위해서는 변화가 필요하다.

어떤 이가 출근하며 '오늘도 열심히 해야지'라고 결심했다면 그에게 발전은 쉽지 않은 일이다. 똑같은 일만 되풀이 하면 퇴보하기 마련이다. 남다른 노력을 해야 한다. 항상 변화를 준비하여 미래를 향해야 한다.

서울대에 입학한다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다. 서울대는 비슷한 수준의 사람들의 군집이다. 경쟁이 관건이며 그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경쟁우위를 마련하는 것은 차별성이다. 치열한 동종업계에서 성공하는 기업은 항상 어떻게 하면 남다른 제품을 만들지 고민한다. 그저 성실함만을 추구하면 발전할 수 없다. 10년 후에도 같은 곳에서 맴돌 뿐이다.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는가, 더 나은 방법이 없는가, 어떻게 하면 고질짜를 항상 생각해야 한다. 앞으로 할 일에 대해서 끊임없이 생각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성공할 수밖에 없다. 똑같은 머리지만 어떤 식으로 생각하느냐의 차이가 결국 더 나은 것을 찾아간다는 것이다.

### ABCD성공법

D등급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시키는 것을 마지못해서 할 수 없이 한다. 이런 유형의 사람은 직장 상사가 업무를 시키면 당당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월급 때문에 할 수 없이 한다. 결혼해서 애를 낳으면 내가 아이를 낳은 죄로 할 수 없이 키운다. 즐겁게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할 수 없이 하는 것이다. 사실 이런 사람들은 머리가 나쁘지 않다. 그러나 나쁘지 않은 머리로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안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 C등급은 시키면 꼬박꼬박 하는 스타일이다. 시키는 것은 하고 꺾는 안 부린다. 그러나 잘 하고자 하는 의욕이 없다. 또 시키지 않은 것은 절대로 하지 않는다. 성실함의 정의를 '시키는 것은 한다'라고 생각한다. 이런 사람들은 스스로가 유능한 인재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은 실제로 쓰임새가 없는 사람들이다.

예전에 한 직원에게 중요한 서류를 어디에 전달해주고 오라고 시켰다. 그 다음날 잘 전달했냐고 물었더니 전달할 사람이 없어 그냥 다시 가지고 왔다고 했다. 그 직원은 성실한 친구였다. 그러면 보고를 해야지 왜 그냥 가져왔냐고 물었더니, 보고하라는 지시를 하지 않아서 보고하지 않고 그냥 가져왔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 직원에게 어떤 일을 시킬 때는 정말 시시콜콜하고 상세하게 지시를 해줘야 한다. 그럴 시간이라면 내가 다녀오는 것이 더 빠를 것이다. 실제 그는 나쁜 직원은 아니다. 시키면 다 한다. 그러나 그 다음 단계로 움직이지는 않는다. 결국 그 직원 스스로가 답답해서 일을 그만뒀다. C등급은 성실하지만 평생 절대 중간 이상 평가받지는 못한다.

B등급의 사람은 시키는 뜻을 헤아리고 그 뜻이 실천되도록 노력하는 사람이다. 시키는 의미를 깨닫고 기왕이면 조금 잘하려고 생각한다. 말귀를 제대로 알아듣는 사람이 B급이다. 식당에서 반찬을 더 달라고 직원에게 요청했을 때 C등급의 직원은 반찬을 가져다주되 손님과 눈조차 마주치지 않지만 B등급의 직원은 미소 지으며 '맛있게 드세요'라고 말하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은 승진에서도 차이가 날 것이다. 사장은 부리기 편한 사람을 승진시킬 수밖에 없다.

C등급과 B등급의 직원과 달리 손님이 반찬을 요청하기 전에 빈 접시를 확인하고 반찬을 가


져다주는 직원이 있다. 이런 직원이 바로 A등급이다. A등급의 사람은 시키기를 기다리지 않고 자기가 할 것을 찾아서 한다.

어느 섬유업체에 사장과 직원 A, B, C, D가 있다. 겨울에는 다음해 여름 신상품을 준비해야 한다. 그럼 한 달 후 직원이 핑계를 대며 시간을 더 달라고 한다면 이 직원은 D등급이다. C등급은 일을 처리해 와서 보고를 한다. B등급은 사장이 생각하지 않던 것까지 조금 더 챙겨서 보고를 한다. A등급은 사장이 내년 여름 어떻게 됐는지 물어보기 전에 먼저 보고할 것이 있다고 이야기를 꺼낸다. 사장 입장에서 어떤 직원은 계속 재촉해야 하는 반면 어떤 직원은 알아서 준비해 온다.

### 성공하는 사람, A등급

세상에는 A형 인간들이 있기 때문에 변화와 혁신이 일어난다.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은 A등급이 아니면 할 수 없다. 꿈과 목표를 생각하고 남과 다른 노력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세상의 주인이 될 수 있다.

급진적 변화가 역적취급을 당하던 고대의 정체된 사회에서는 C등급 정도만 되어도 생존이 가능했다. 이후 리더가 이끌고 구성원이 따라가는 산업사회에서는 B등급 이상이 되어야 생존할 수 있었다.

그러나 80년대 후반부터 우리나라는 달라졌다. 유학자유화, 해외여행, 이민, 해외자본 등 모든 것이 개방된 글로벌 시대가 찾아온 지 오래다. 우리는 처음 외환위기로 처절하게 몸부림쳤으나 이제는 극복하여 누구와도 경쟁할 수 있게 되었다. 대한민국의 '빨리빨리' 정신은 배부른 선진국을 앞지를 원동력이 되었다. 이제는 살기위해 본능적으로 A등급이 되어야만 한다. 오직 A등급만이 생존할 수 있는 세상이 되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 A급이 되어야 한다. 

# 사랑이 바로 서야 국가가 산다

'2010 상해 세계엑스포'에 22명의 연구원 회원들과 함께 지난 6월 25일부터 2박 3일의 일정으로 참관하고 돌아왔다. 함께 한 심대섭 명동의류 회장은 80년 가까운 생애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인 처음 본다며 탄성을 질렀다.

6월 26일, 당일 입장객이 50만 명을 넘었다는 공식발표가 있었다. 그 전날 상해에 도착해 상해 총영사관의 김중철 영사로부터 "이번 엑스포 입장객 목표가 7,000만 명인데 지금까지는 예상 이하여서 중국 정부가 당혹스러워 하며 후속 조치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러나 하루 입장객 50만 명이 심심찮게 이루어진다니 엑스포 개최 6개월간 총 7,000만 명이라는 입장객 목표는 무난할 것 같다.

그런데 엑스포 관람객의 95% 이상이 중국 내국인이라고 한다. 놀라운 것은 그들의 복장을 비롯한 현대품의 수준과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들의 밝고 환한 표정들이었다.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해온 중국인이 아닌 전혀 새로운 중국인의 모습이었다.

원스턴 처칠은 "비관주의자는 모든 기회에서 위험을 보고 낙관주의자는 모든 위기에서 기회를 본다"고 했다. 뉴 노멀시대에 G1인 미국을 추월할 것으로 예측되는 G2국가 중국의 새로운 모습을 읽을 수 있었다. 중국은 지난 베이징올림픽으로 무서운 성장을 전 세계에 과시했고, 이번 상해엑스포를 통해 전 세계, 그리고 13억 중국인 자신들에게 뉴 노멀시대 최강자로서의 포지션을 확실하게 각인시켰다.

하지만 귀국길에 오르면서 둘러보니, 푸둥공항이 아시아 최고의 허브공항임을 자랑하는 것과 달리 비즈니스라운지의 서비스 질이 나 좁은 공간은 세계 최강국으로 성장해 갈 중국의 과제가 무엇인지 보여주었다. '만만다'의 중국문화와 '빨리빨리'의 한국문화에서 오는 차이라고 하기에 고개가 가로저어진다. 그러나 상해엑스포를 통해 세계는 지금 아시아 시대로 급선화하고 있음을 실감하는 데는 무리가 없었다. 또한 2년 후 한국에서 개최될 여수엑스포 홍보에 대한 기대와 함께 상해엑스포의 10분의 1 규모 밖에 되지 않을거란 생각에 은근히 걱정이 밀려오기도 했다.

세계 금융질서가 무너지면서 미국을 비롯한 올드 노멀시대를 지배해왔던 서유럽 국가들이 흔들리는 가운데 세계는 뉴 노멀시대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겪고 있다. 뉴 노멀시대의 바람은 중국뿐 아니라 인도, 중앙아시아, 한국을 포함한 동남아, 중동, 아프리카, 남미 등에서 강하게 불어오고 있다.

문제는 우리가 뉴 노멀시대를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이다. 다행히도 세계는 지금 한류를 타고 부는 한반도의 뉴 노멀시대의 바람을 주목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영화 '쇼생크탈출'에서 평생을 감옥에서 보내 변해버린 감옥 밖의 세상을 두려워하던 노인과 같은 사람들이 한반도에 너무나 많다.

특히 정치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렇다. 정치지도자들은 최근 6.2지방선거가 보여준 정치혁명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구태의연한 모습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여야를 막론하고 그렇다. 6.2지방선거가 남긴 문제가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지만 이에 대응하는 국가지도자의 리더십에 고개가 가웃겨려진다.

올드 노멀시대의 고정관념을 버리고 뉴 노멀시대의 새로운 바람을 읽어야 한다. 뉴 노멀시대는 지식·정보로 머릿속이 가득 차 둔탁해진 지성의 시대에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쓸데없는 경쟁의식을 접고 용서와 화해, 그리고 영혼이 요구하는 영성을 가슴에 안고 더불어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 점점 더 절망의 늪으로 빠져들어 가는 북한문제도 뉴 노멀시대의 정신으로 이성의 한계를 넘어 영성으로 거듭나야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을까.

같은 시점에서 남미 콜롬비아에서 불고 있는 뉴 노멀시대의 바람이 신선하다. 가난과 마약, 게릴라전쟁에 시달리던 콜롬비아가 총 대신 영어책을 들고 '교육만이 변화의 열쇠'라고 믿고 '근면혁명'을 일으키고 있다는 희소식이다. '일해야 산다'는 깨우침으로 정부, 국민이 똘똘 뭉쳐 '중남미의 유대인'이라 불릴만한 근면혁명을 일으키고 있다. 2002년 취임한 알바로 우리베 대통령의 새로운 리더십이 정치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중남미에 새로운 희망의 바람을 일으키며 연평균 8% 이상의 경제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우리베 대통령령의 리더십과 콜롬비아 국민들에게 기대와 존경, 신뢰의 박수를 보낸다.

'Better People Better World'의 신념을 다짐하면서 'Better People Better Korea'를 생생하게 상상해 보자. 국민이 바로 서야 나라가 산다. **KOREA**

# 2010 JEJU CEO SUMMER FORUM

## 2010 JEJU CEO SUMMER FORUM

### 새로운 항해를 위한 출발

꿈과 희망의 미래를 디자인하는 CEO 최고의 지혜여행, 2010 제주 섬머포럼에 가족과 함께 초대합니다.

이번 포럼은 그 동안의 세계적인 경제위기를 뒤로하고 새로운 항해를 위한 출발선에서 경영의 지혜를 찾아 떠나는 내면의 여행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잠재력을 발견하고, 감성과 문화를 통해 창의 경영을 충전하며, 100년 기업으로 가는 희망의 항해를 위한 다양한 분야의 멘토를 모시고자 합니다.

더불어 3박4일 동안 부부가 함께하는 포럼구성으로 회사의 성장과 함께 균형 잡힌 인생의 성공을 위해 3박4일 동안 가족의 행복을 더하겠습니다. 좋은 사람들과 함께 비전과 경영, 행복한 휴식을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1일차 프로그램 | 7월 28일 수요일

일 정	프로그램
	김포공항-제주공항 이동
	참가자등록 및 체크인 자유시간
16:00-16:10	개회사
16:10-17:00	기조강연   한국 금융정책의 현황과 과제 진동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17:10-18:20	가족특강   행복을 찾아 떠나는 여행 - 나는 지금 행복을 선택한다 이요셉 한국웃음연구소 소장
18:30-20:00	환영만찬   한여름 밤 푸른 제주의 낭만 장웅 KBS 개그맨



### 2일차 프로그램 | 7월 29일 목요일

일 정	프로그램
07:00-12:00	제주섬머포럼 2010 골프대회 제주올레 100배 즐기 & 자유관광
12:00-14:30	점심시간 및 자유시간
14:30-15:40	인문학콘서트   꿈과 현실의 카오스, 영화 속 미래세계를 만나다 박태현 서울대 화학생명공학부 교수
15:55-17:35	세대공감   젊은 세대, 그들과 어떻게 함께 갈 것인가? 공병호 공병호경영연구소 소장 윤은기 중앙공무원교육원 원장 Moderator: 권영설 한국경제신문 환경아카데미 원장
17:50-18:50	경영특강   1억 원 물고기를 탄생시킨 블루오션의 신화 류병덕 물고기마을 회장
18:50-	개별 저녁식사 및 자유시간



# 지식경영에서 지혜경영으로! CEO 지혜의 바다에서 나를 만나다

꿈과 희망의 미래를 디자인하는 CEO 최고의 지혜여행

## 3일차 프로그램 | 7월 30일 금요일

일 정	프로그램
07:00-12:00	인경회 회장배 골프대회 제주올레 100배 즐기기 & 자유관광
12:00-14:30	점심시간 및 자유시간
14:30-16:10	리더십대담   지혜의 혁명시대와 영성의 리더십 : 지성에서 영성으로! 이어령 중앙일보 고문 윤병철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 Moderator: 장만기 인간개발연구원 회장
16:25-17:35	창조경영특강   지금은 스마트폰시대 표현명 KT 사장
17:50-18:50	인문학콘서트2   그림에서 보는 창의력 : 레오나르도 다빈치에서 앤디 워홀까지 박희숙 서양화가
18:50-19:50	만찬 & 골프대회 시상식
19:50-21:20	오페라콘서트   유형중 음악칼럼니스트와 함께 하는 오페라 콘서트 & 와인파티 유형중 음악칼럼니스트

일정: 2010년 7월 28일(수) ~ 7월 31일(토) 3박 4일

장소: 제주 롯데호텔

주최: 인간개발연구원/한국경제신문/서울이코노미스트클럽

참가대상: 기업/기관의 최고경영자 및 임원과 가족 300명

## 4일차 프로그램 | 7월 31일 토요일

일 정	프로그램
07:00-09:00	아침식사 및 체크아웃
09:00-10:40	경제대토론   글로벌 경제 새로운 패러다임과 한국경제의 재탄생 주제발표: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 패널토의: 현오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 김수룡 도이치은행그룹 한국 회장 종합정리: 조순 前 경제부총리
10:59-11:50	경영특강   글로벌 한국기업의 조건 이희범 STX에너지 회장
11:50-12:20	크로징 리마크   조순 인간개발연구원 명예회장 (前 경제부총리)
12:20-	폐회인사 개별 점심식사 및 제주공항 이동

# 목리문(木理紋)을 보며



통나무로 만든 차탁(茶卓)이나 장인들이 만든 장롱, 사방탁자, 책상, 밥상 등 목공예품(木工藝品)을 보면 나무의 영혼과 교감하는 시간이 있다. 한국의 목공예품은 소박하지만, 나이테의 무늬인 목리문(木理紋)은 형언할 수 없는 아름다움을 지녔다.

나무는 한 해씩 어김없이 일 년의 삶을 압축하여 한 줄의 나이테를 가슴에 새겨 놓는다. 백 년 수령의 나무라면 백 줄의 나이테로 일생의 체험과 느낌을 한 장의 아름다운 추상화(抽象畵)로 남긴다.

나무의 일생을 기록한 장엄하고 아름다운 목리문을 손으로 어루만져 본다. 나무가 기도하며 고개 숙여 맞았을 아침 햇살의 경건한 말, 한밤중 달빛의 서정, 바람의 촉감, 빗방울의 노래가 목리문 속에 깃들여 있다. 지상의 한 공간에서만 일생을 보낸 나무이건만, 하늘과 땅과 우주와 소통하고 교감한 삶이 추상 언어로 기록돼 있다.

통나무를 두세 등분 내 만든 차탁의 목리문을 본다. 나무 일생의 연보(年譜)를 읽는다. 나무는 살아서 천 년, 죽어서 천년이라 했다. 나무는 목리문을 남겨 놓았기에 일생이 영원 속에 있음을 본다. 일 년의 핵심, 영혼의 표정, 잊을 수 없는 기억, 순간에서 멈추기 안타까운 감정의 빛깔과 향기가 한 줄의 그리움으로 흐르고 있다. 목리문을 보면서 나무가 남긴 자서전을 읽는다. 삶의 풍경, 삶의 의미와 가치가 한 줄씩의 기록으로 아로새겨져 있다.

목리문은 나무가 일생을 통해 발견한 삶의 발견과 깨달음을 노래한 악보(樂譜)다. 목리문은 물 흐름처럼 번져 나가는 형태를 띠고 있다. 그것은 세월의 무늬를 음파(音波)의 무늬로 노래한 모습이다. 목리문을 보면 태양의 찬미와 달빛의 도취와 바람의 촉감이 어우러진 우주와 자연의 음악이 들려온다.

한국은 어느 나라보다 사계의 구분이 선명하여 목리문이 아름답다. 한국의 목공예가들은 목리문의 아름다움을 잘 아는 까닭에 인공적인 장식미(裝飾美)보다 목리문이 지닌 자연미를 어떻게 부각시킬 수 있을까에 초점을 두었던가 보다. 목리문의 아름다움은 나무만의 힘으로 그려진 게 아니다. 하늘과 땅, 바람과 물의 기운을 받아서 그려졌다.

1980년대 한국 시골에서 흔하게 볼 수 있었던 대대로 물려받은 뒤주, 장롱, 밥상이 옛장수나 고물장수들에 의해 혈값에 팔리거나 호마이카 새 옷장과 바꾸어져 사라지게 된 시절이 있었다.

한국인이 프랑스 파리의 갤러리에 진열된 한국의 목공예품을 발견하고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예전에 옛장수에게 저저 주다시피 한 고물이 여기에 있으니 웬 일인가?”하고 값을 물었더니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고액이어서 경악했다고 한다.

갤러리 주인은 웃으면서 “한국의 목공예품은 대개 200년 이상의 나무로 만든 것이고, 세계에서 가장 목리문이 아름답다. 목리문은 몇 백년간의 햇빛과 달빛, 나무의 삶이 그린 걸작이다”고 찬탄했다는 것이다.

당시 한국인들은 한국 목공예품의 진가를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고, 목리문의 미학을 알지 못하여 혈값에 귀중한 문화재를 외국으로 반출시키고 말았다. 우리 것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알지 못한 무식의 소치였다.

합천 해인사에 보관 중인 팔만대장경은 국보 제32호로서 유네스코에 등재된 세계적인 문화유산이다. 우리나라 지식문화의 결정체인 고려대장경이 제작된 지 천년이 되는 2011년에 경남 합천에서 ‘대장경 천년 세계 문화축전’이 개최된다. 대장경은 인류사 최대의 문명 총서이자 인류 목판예술의 정수이다. 국난을 당한 중에도 기도와 신앙심으로 불경을 나무에 고스란히 새겨 놓았던 우리 민족은 나무의 영혼을 알았던가 보다.

목리문을 보면서 나무의 영혼, 나무의 미학을 본다. 인간은 나무의 무한한 은혜를 입고 살건만, 목리문의 아름다움과 지혜를 알지 못해 자신의 목리문을 남기는 이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

# 내연금 갖기 캠페인

서로가 맺은 약속이기에 꼭 받고  
우리 모두가 함께 하기에 많이 받고  
물가가 오를 만큼 더 받는  
**평생 월급 국민연금**

## ● 가입기간 10년으로 연금 받기

노후에 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입기간 10년(120개월)을 채워야 합니다.  
60세가 되었을 때 120개월을 채우지 못했으면 임의계속가입을 해서 120개월을 채우면 그 때부터 연금을 받게 됩니다.

## ● 가입기간 20년 이상으로 노후걱정 덜기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길수록 소득이 높을수록 연금액이 많아집니다.  
지금은 다소 어렵더라도 젊을 때부터 시작하여 가입기간을 20년 이상 늘려야 노후에 실질적으로 보탬이 되는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부부가 함께 가입하여 노후 든든

부부가 함께 가입해서 각자의 연금을 받는다면 훨씬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전업주부와 같이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임의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행복할 때, 당신의 소중한 꿈이 자라날 때  
그 행복을 같이 나눠온 은행이 있습니다  
고객님의 바로 옆, 항상 IBK기업은행이 함께 하겠습니다

행복이 열리는 순간마다  
IBK기업은행이 있습니다

평생 **IBK** 당신도 **IBK**

IBK캐피탈 IBK투자증권 IBK자산운용 IBK시스템 IBK신용정보